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20호

Wednesday, June 18 2025 A

악재에도 트럼프 지지율 견고

최고 53%, 이민정책 지지율이 높아

최근 이민정책과 불안한 중동정세 등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한 달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전달과 동일했다. 물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9%, 관세는 40%를 기록했으나 이민정책은 51%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 체포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급기야 폭력시위로 인해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나, 국민 다수는 여전히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는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성인 1만9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2.1%포인트였다.

로이터통신-입소스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 지지율은 4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47%였으나, 이후 4개월 동안



소폭 하락한 뒤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민정책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49%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견인하는 정책은 이민 관련 정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불법 이민자

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이민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물가와 관세 등 경제정책 지지율은 39%, 외교는 4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1-16일 성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라스무센 리포트의 최근 조사에서는 53% 지지율이 나왔다. 칸티스 인사이트는 47.5%, 모니 컨설트는 47%, CBS 뉴스는 45%를 기록했다. 15개 주요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를 발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티스는 46.9%였다.

김옥채 기자

오늘(18일)부터 본격 더위

2주 이상 지속 예상, 습도 위험

연방기상청(NWS)은 오늘(18일)부터 워싱턴 지역 등 본토 40여개 주에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폭염은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서는 최고기온이 10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영향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1억7천만명 이상이다.

향후 2-3주 동안 높은 습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게릴라성 호우 현상도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워싱턴 지역의 최근 집중호우도 높은 습도 탓이었다. '거대한 물기둥'으로 일컫는 전선이 오늘은 미드웨스트와 플레인스 지역을 강타하고 내일(19일) 워싱턴 동부 해안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지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른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서양 연안과 미국만(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고온다습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지역은 17일부터 습도가 높아져 목요일 '이슬점 임계값'(Dew Point)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NWS는 75 이상의 이슬점 임계값을 '극한'(Extreme)으로 분류한다. 이슬점은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는 온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에서 극심한 폭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 전역에서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500만불 영주권 카드 '6만8700명 신청'

1조달러 수익 기대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골드카드'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상무부 산하 골드카드 사이트에 신청한 사람은 현재 전 세계에서 6만8700명에 달하며, 이를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골드카드는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제도를 연결하고 500만 달러를 납입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이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영주권(일명 골드카드)은 실제 금속 재질로 제작되며, 트럼프 대통령 얼굴과 서명, 성조기, 자유의 여신상이 포함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앞선 EB-5 투자이민 제도에서는 최

대 18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통해 약 1만4000여 명이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의 많은 사람들이 골드카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확실한 수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트럼프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사태와 관련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으나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미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무조건적인 항복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제국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제법 괜찮은 대공방어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통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간 미사일 공습을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환원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유학생, 작년 경제에 438억불 기여

2023~24학년도 전국 110만명
교육·주거 등 산업 전반에 영향



학생 수의 4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교 유학생 수는 2만1023명이었고, ▶캘리포니아대가 2만321명 ▶애리조나주립대 1만8430명 ▶캘리포니아주 USC 1만7469명 등이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유학생 신규 비자 인터뷰 예약을 중단시키며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들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콘스탄틴 아넬리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학생 비자가 취소돼 유학생이 줄면 부동산부터 레스토랑까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및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 경제에 유학생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110만여명은 등록금, 기숙사, 생활비 지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했다.

또 유학생들은 교육, 주거,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37만8175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로 인해 대학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학생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주별로 보면 2023~2024학년도 유학

생 수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다. 해당 주에서 14만858명 유학생이 머물며 64억 달러를 지역 경제에 기여했고, 뉴욕주에서는 13만5800명이 63억 달러를 기여했다. 이외에도 ▶텍사스주 8만9500명이 25억 달러 ▶매사추세츠주 8만2306명이 39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뉴욕대학교가 2023~2024학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교육연구소(IEE)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대 유학생 수는 2만7247명으로, 전체

워싱턴 지역 단신

FBI 대통령 암살모의 VA 남성 체포

연방수사국(FB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모의 혐의로 버지니아 남성 피터 시튼슨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고위 관료로, 1988년부터

2021년까지 해안경비대 장교로 근무했다. 용의자는 복수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을 칼, 총, 독 등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내셔널스 경기에 배트 독 ‘브루스’ 데뷔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가 21개월짜리 리트리버 ‘브루스’를 ‘배트 독(Bat Dog)’로 데뷔시켰다.

브루스는 15일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전에 첫선을 보였다. 브루스는 트리

플A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배트 독으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메이저리그 콜업을 받은 셈이다. 이날 브루스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은 반려견 동반 특별 이벤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VA 라우던 카운티 시로 불링 차단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교육청이 공립학교 내 불링과 폭력사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트 AI’가 운영하는 이 시

스템은 기존의 학교 내 감시카메라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불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특정하고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도록 구조화했다.

페어팩스 로턴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시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로턴의 I-95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선다.

37에이커 부지에 시설이 완성되면 1천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

는 5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 카운티 정부는 시설이 가동되면 20년 동안 1200만달러를 절감하고 13만6천 메트릭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 노출하다 체포돼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리 로버트 듀비크(40세)를 신체 노출 및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4일 학교 내 자신 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복수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신체를 노출하고 부적절한 제스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써머 캠프 흥역 감염주의, 백신 접종 증명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최근 해외 여행자를 통해 흥역이 미국 내로 유입되고 2차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DC는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써

머 캠프에서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캠프 참가자의 흥역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재 기자

FDA, ‘개스스테이션 헤로인’ 경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티아넵틴 성분이 포함된 일명 ‘개스 스테이션 헤로인’이라고 불리는 서플리먼트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에너지 보충제’나 ‘인지 보충제’로 팔리는 작고 화려한 병을 종종 편의점이나 담배가게, 그리고 개스 스테이션에서 볼 수 있지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FDA는 ‘자자(Zaza)’, ‘티아나(Tiana)’, ‘넵튠스 픽스(Neptune’s Fix)’, TD Red 등 제품들은 중독을 유발하고 호흡에 위험을 초래하고, 심지어



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성분인 티아넵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티아넵틴이 함유된 보충제는 오피오이드, 헤로인, 진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또 티아넵틴은 우울증 치료제로 판매되기도 한다.

연방중독관리신고센터(CPC)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525% 급증했는데, 이 중 10건 중 4건이 의료 조치가 필요했고 절반 이상은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응급 상황의 원인이 더욱 강력하고 위험해진 제품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 제품에 합성 대마초와 기타 약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DA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 어떠한 질병에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약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다만 건강 보조 식품으로 판매는 무방하다.

김성환 기자

메릴랜드 주민 광견병 너구리에 물려

실버 스프링 보건국, 경보 발령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가 주민을 공격해 물린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광견병 양성 반응을 보인 너구리가 1800 프랜월 애비뉴 인근에서 주민 두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국은 16일 오후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사람이 여우, 너구리와 같은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퀴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중추 신경계를 공격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항상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광견병 초

기 증상은 발열, 두통이 나타난다.

길 잃은 동물이나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퀴는 경우 즉각적인 예방 치료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국(240-773-5900)에 신고를 해야 한다.

워싱턴 일원에서는 올해 들어 광견병에 걸린 여우나 너구리 출몰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19일(목)	91-65	☀️	22일(일)	95-74	☀️
20일(금)	86-68	☁️	23일(월)	97-78	☀️
21일(토)	91-71	☁️	24일(화)	99-77	☀️

6월 18일(수) 87-7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인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인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	--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라지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2025 아태문화예술축제, 성황리 막 내려

‘아리랑 코리아’ 관람객 환호 전통문화 공연에 “원더풀!”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이 주최한 제19회 아태문화예술축제 “아리랑 코리아”가 지난 14일 메릴랜드 인디언 헤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내달까지 장시간 이어질 가운데 축제의 첫 행사는 한·주류사회 명품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개막식에는 이태미 이사장을 비롯해 한·주류사회 주요 내빈, 그리고 공연 팀과 한인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개막 공연 행사에서는 권기선 성악가의 금강산을 필두로 이희경 무용단의 부채춤, 주상희 무용단의 아리랑과 사물놀이, 박야림 무용가의 밤길, 소

고춤이 수준 높게 펼쳐져 관람객들로 부터 이목을 끌면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어진 박송희 연구가의 한식요리 시식행사에는 김밥, 떡볶이, 우동, 김치전, 해물과전, 어묵꼬치 등이 선보였는데,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광경을 연출하며 ‘K-푸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앞서 메릴랜드 주사랑 한인교회 성도들이 합심해 준비한 “홀로아리랑”은 감동에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인 이주환 작가의 한지꽃을 이용한 전통 갓 만들기 체험행사는 타인종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태미 이사장은 “이번 축제는 한·주류사회가 결합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아태문화예술축제 참가자들이 공연 후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었다”며 “참여해주신 동포사회 단체장과 기관·한인들, 그리고 공연을 위해 한국에서 오신 한미문화예술재단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지역에서 더욱 인정받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축제는 이달에는 매주 메릴랜드

찰스카운티 도서관을 찾아 ‘한국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내달 8일에는 애너데일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노바대학에서 ‘코리아 아트 앤드 쇼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트럼프, 열병식 기대 못미쳤다” 격노

데일리비스트 보도, 백악관은 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워싱턴 도심에서 열린 열병식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문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울프 작가는 17일 보수성향 언론 데일리비스트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강인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원했으나 마치 축제 같은 퍼레이드에 불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퍼레이드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울프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이 (임무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즐기고 있었으며, 군기를 전혀 볼 수 없는 태도로 행진하는 것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이미지를 원했으며 이를 전세계에 보이고 싶었으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열병식은 다른 나라의 ‘각잡힌’ 열병식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부 군인들은 발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문제가 많았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날 열병식의 군기 빠진 군인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의 제식 동작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행사 기획자가 누구인지 헤그세스 장관에게 따져 물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울프 작가의 발언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울프 작가가 매우 더러운 상상력을 지닌 사기꾼이며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주택건설업 시장 둔화

주택시장지수 2년래 최저

6월 주택시장지수(HMI)가 최근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웰스파고의 6월 주택시장지수가 32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HMI는 싱글하우스 건설업체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선이 5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시장전망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모기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연방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바이어 활동이 감소한 점을 원인으로 꼽

았다. HMI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지표도 모두 하락했다. 현재 싱글하우스 판매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는 35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예비 구매자 유입 지수 및 향후 6개월 기대 지수도 각각 21, 40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로버트 디즈 NAHB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주택 리스팅 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바이어가 가격하락을 기대하고 구매활동을 늦추고 있다”면서 “워싱턴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옥채 기자

대졸자 신규채용 급감

신규 대졸자 실업률이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새 신규 대졸자 평균 실업률은 6.6%를 기

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실업률 4.2%보다 2.4%포인트 높은 것으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구직의사가 있는 20-24세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취업하지 못한 이들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IT 전공 관련자들의 취업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의 대졸자 실업률보다 높지만,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35-44세의 대졸자 실업률은 최근 1년동안 2.2%로 이전보다 상승했다.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에드립교회 입당감사예배

에드립 교회(담임목사 이태봉)는 이전 입당감사예배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3년 알렉산드리아 예배 처소를 사용했던 에드립 교회는 페어팩스 시대를 열고 이전했다. 이전 감사예배는 오는 22일(일) 오전

11시 페어팩스 예배당(11240 Waples Mill Road, Suite 200, Fairfax, VA 22030, 헤리티지 신학교 건물 2층)에서 진행된다. 에드립교회 정기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주중예배는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아침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 30분이다. >문의: 571-263-7637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미와 함께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인
DUO NY 212-915-7115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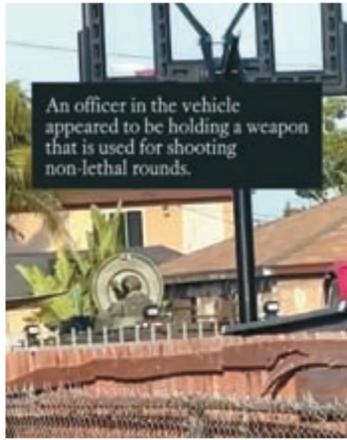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LA 불체 단속에 군 장비... 대응 수위 높아져

중무장 ICE 60명 스왑밧 급습
체포 작전에 군용 장갑차 동원
헬기와 드론 띄워 시위대 감시
민간인 구급한 해병대원 논란



(왼쪽) 지난 13일 LA월서 연방청사 앞에서 해병대 병력이 한 남성을 붙잡아 제한 구역을 넘은 혐의로 임시 구금했다. (오른쪽) 지난 9일, 캄튼 지역에서 군용 스타일 장갑차량의 해치위에 장비를 든 요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장 안전을 위한 감시 용도"라고 설명했다. 시위 감시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공장소 공중 감시 확대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LA 도심에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배치했다. 스콧 셔먼 작전 지휘관은 "해병대는 법 집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ICE 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병대 병력이 민간인 구급에 나선 장면이 공개되며 과장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3일 해병대 병력은 연방 건물에 접근하는 민간인 1명을 구금했다. 체포된 인물은 육군 참전용사 출신 귀화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군 병력이 통상 민간 치안 활동에 직접 나서지는 사례가 드문 만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법적·제도적 논란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LA경찰국(LAPD)은 현재까지 시위 관련 체포자수가 561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강한길 기자**

불법체류자 단속과 시위 감시에 군사 장비와 병력까지 투입되면서 LA 불체 단속이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섰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13일 LA카운티 산타페 스프링스 스왑밧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60여 명이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국토안보부(DHS) 소속 헬리콥터가 상공을 순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요원들은 행사장 부스와 화장실을 수색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취소됐다.

이 스왑밧은 라티노 커뮤니티 중심의 플라마켓으로 매주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노점상 아라셀리 로페즈씨는 "화장실에 있던 사람도 끌어냈다"며 "부모님과 할머니는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왑밧 운영 측은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상의 작전은 캄튼에서도 벌어졌다. LA타임스가 확보한 지난 9일 영상에는 군용 녹색 도색의 장갑차가 주태가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치 위 무장 요원은 군복과 헬멧, 방탄복을 착용하고 비상상 탄환 투발용으로 추정되는 페인트볼 탄창 장착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총구가 일시적으

로 조준되는 모습이 촬영됐으나 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갑차 상단에는 벽 파괴 추정 장비도 확인됐다. 주민들은 철문이 부셔지고 5~7명이 연행됐으며 이 중 일부는 어린이였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사 장비 투입은 시위 현장 감시에도 확장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LA 시내 상공에 군용 헬기 블랙호크와 MQ-9 '프레데터

B' 감시 드론이 운영된 정황을 지적했다. MQ-9 프레데터는 주로 해외 군사 작전에 사용되며, 무장 탑재가 가능한 기종이다. 테크 전문매체 404미디어는 "이 모델은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지만, 현재 LA 상공에서 무장 탑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해당 드론은 무장하지 않았고 연방 요원의 현

영 김, "합법체류자는 겁먹지 않아도 돼"

폭력 시위 근절돼야 하지만
합당량 채우는 단속은 문제

영 김(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LA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불법체류자 단속 항의 시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력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신분의 이민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FOX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에겐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헌법

적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행해지는 시위들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단속 수위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이 겁을 먹지만, 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의 체류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 킹스 시위가 평화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캐런 베스 LA시장의



발언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찰차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가 어떻게 평화적일 수 있느냐"며 "지금껏 우리가 봐온 시위는 폭력적이었"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 LA시 등이 연방 당국에 협조했다면 긴장감이 팽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상식이 통하는 이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준 기자

'알타데나 화마 재건' 상징 되다

지역 명소 '페어옥스 버거'
6개월 만에 재오픈 행사
"지역 재개발 신호탄 될 것"

"화마로 폐허가 된 알타데나가 다시 일어서는 데 기여해야죠."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알타데나 지역의 명물 햄버거 식당 '페어옥스 버거'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이튼 산 불 여파로 문을 닫은 지 6개월 만이다.

'페어옥스 버거'는 지난 14일 주민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재오픈 행사를 가졌다. 38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이기선(81), 유정자(75)씨 부부는 모처럼 밝은 미소를 머금고 분주히 움직였다. 부부는 이날 주민들을 위해 햄버거, 샌드위치, 데리아키 차우먼 등 10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페어옥스 버거'는 지난 1월 대규모 화재 당시 운 좋게 화를 면했다. 주변은 다 잿더미가 됐지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고 내부에는 재가 쌓여 영업을 불가능했다.

이씨는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돼 너무 기쁘

고 감개무량하다"며 "응원해준 주민과 한인 사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인 유씨도 "재개장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며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페어옥스 버거'의 운영은 부부의 첫째 딸 제닛과 작은딸 크리스틴이 도맡고 있다. 이날 재오픈 행사를 기획한 것도 이들 자매다. 제닛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며 "모두 긍정적인 자세로 동네 재건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크리스틴씨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재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걱정은 되지만 커뮤니티에 희망을 준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7년 단골이라는 올리버 스미스씨는 "페어옥스 버거가 살아남아 누구보다 기분이 좋다"며 "우리 동네 재건에 상징적인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LA에인절스 경기 중계를 하다 지금은 LA다저스 경기 중계를 하는 야구 전문 방송인 호세 모타도 이날 페어옥스 버거를 찾았다. **김경준 기자**

한인 입양인 시장 재선 도전

유타주 케이스빌 타마라 트랜
서울 출생, 70년대 미국 입양

4년 전 유타주 케이스빌 시장에 당선돼 주목을 받았던 한인 입양인 타마라 트랜(사진)이 올해 재선에 도전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 유타

주로 입양됐으며 브리검영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도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트랜 시장은 이후 케이스빌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고 '평화와 통합' '공동 가치 추구'를 기치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 2021년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시장으로 선출돼 최근 4년 동안 케이스

빌시 행정을 책임졌다. 그는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한국의 친모를 찾는데도 성공했으며, 아들은 한국에서 이민 온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트랜 시장은 고민 끝에 6월 초 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최인성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트럼프 먼저 떠났다, G7 파행

트럼프 “중동휴전보다 더 큰 것 있다” 관세 논의 기대하던 정상들 허탈 오늘 예정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 대통령실 “미국 측서 양해 구했다”

7년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조기 귀국했다. 회의장이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 도착한 지 하루 만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전 양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G7 회의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비핵화 회담을 이유로 회담장을 먼저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이틀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도 불발됐다.

당초 미국은 이란과 지난 15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공습한 뒤 협상이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자신의 SNS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면서 “틀렸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있다. 채널 고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미 해군 니미츠함(CVN-68) 항공모함 전단은 선수를 중동으로 돌렸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도 일제히 중동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명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결정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이스라엘이 지원을 요청한 초대형 병커버스터 GBU-57에 대한 지원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외교적 노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미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으로 향하고 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전 격화를 이유로 이날 조기 귀국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NSC를 소집했다. [연합뉴스]

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할 경우 이란의 지하 핵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병커버스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13.6t에 달하는 GBU-57을 투하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작전이 실행될 경우 미국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모든 역내 기지가 사정거리 내에 있다”며 직접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조기 귀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의에서 중국의 G7 참여에 대한 질문을 받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며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을 왜 여기에 두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러시아에 대해서 “만약 러시아가 G7에 남아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차이를 넘어 매우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대러 추가 제재를 요청한 유럽을 향해선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반대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이후인 2014년 G8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강태화 기자

트럼프 NSC 긴급소집, 병커버스터로 이란 핵 때리나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도 단축하고 16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이란에 협상안 합의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강력 병커버스터 GBU-57 등을 이스라엘에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적 해법이 무산될 경우 미국으로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17일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이란이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병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이란을 탈출하려는 행렬로 16일(현지시간) 테헤란 도로가 꽉 찼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에 소 개령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초대형 병커버스터는 최대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타격할 수 있으며, 무게는 13t에 달해 미 공군의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야 투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 초대형 병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 공격의 최종 목표를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깊숙이 묻혀 있는 포르도 핵 시설로 보고 있다. 포르도 핵 시설에는 단 3주 만에 핵탄두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60% 농도의 우라늄 408kg이 보관돼 있다. 그런데 이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병커버스터가 유일하다.

미군은 지난 2년간 포르도에 병커버스터를 투하하는 작전을 연습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병커버스터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대의 폭격기가 투입돼 연

속으로 병커버스터를 투하해야 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작전 계획을 승인할 경우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아랍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 데 열려 있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하메네이

를 암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하메네이 제거는)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갈등을 끝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을지 묻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 신정일치 체제를 붕괴시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스텔스기로 닷새째 교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IDF)은 17일(현지시간) 0시55분 텔레그램을 통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탐지돼 전국 각지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이 발사됐다. 또 이란 국영방송인 IRIB 본사가 폭격당해 생방송이 중단됐다.

이승호·서유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리노레방

미리조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세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감시레이더 단 중국 군함, 서해 미군기지 앞까지 누볐다

군산 앞바다 드나든 중국 군함
올 1~5월 170회 한국 관할해역 진입
군, 중국 군함 감시장비 공식 확인
대만 유사시 투입 미군 감시 가능성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수년 사이 중국이 감시 장비를 탑재한 군함을 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불과 100여km 떨어진 해역까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우선 투입될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만큼 중국이 한국을 겨냥한 정찰 활동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까지 시도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합동참모본부 국방위 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해의 한국 관할 해역에 약 170회 진입하면서 서해 서방 영해 외곽 약 60km까지 근접했다.

어청도는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제7공군 예하 8전투비행단 기지와 직선거

리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 영해는 약 22km(국제법상 12해리)다. 이를 합치면 중국 군함이 어청도 서방 영해 외곽 약 60km까지 진입했다는 건 군산 미군기지에서부터 142km 지점까지 다가왔다는 뜻이 된다.

합참은 군사적 이유로 한국 관할 해역의 정확한 경계선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2년엔 약 240회 한국 관할 해역에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어청도 서방 영해 외곽 약 40km까지 근접했다. 2018년(약 230회 진입)과 2019년(약 290회 진입)에도 어청도 서남방과 서방 영해 외곽 약 50km까지 이르렀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수시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근방 100여km 해역을 오간 셈이다.

특히 한국 관할 해역에 진입한 중국 군함 대부분은 해상 감시 레이더 등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군함이 해상 감시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정찰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국 군함이 감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관측은 제기돼 왔으나, 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더해 군이 이를 정찰 목적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것이다. 실제 중국 군함의 탐지 거리는 통상 수백km에 이른다. 어청도 인근까지 오면 군산기지 전역을 감시망에 둘 수 있

홍도·서격렬비도의 영해 외곽 50~90km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격렬비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서해 끝단에 자리 잡고 있어 '서해의 독도'로 불리며,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해역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과 관련해 "타국의 군사 활동 목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군 역시 경각심을 갖고 서해상 중국 군함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이런 행태가 우려를 사는 건 서해뿐 아니라 다른 여러 해역에서도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은 "중국 해군 함정의 반복적인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단순한 해상 활동이 아니며, 우리 해역을 내해화하려는 회색지대 전략이자 실질적인 침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IAEA, 이란 나탄즈 지하 핵시설 피해 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7일(현지시간) 이란 나탄즈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IAEA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13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수집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P통신은 IAEA가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 손상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IAEA는 전날

까지만 해도 지하 시설은 피해가 없고 지상의 시범핵연료농축시설(PFEP)과 전력 설비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전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탄즈 지하 농축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심분리기가 심각하게 손상됐거나 완전히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나탄즈 지하 시설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총 1만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고 주로 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분리기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기체 상태인 육불화우라늄으로 변환해 회전 통에 넣고 고속으로 돌려 핵연료에 필요한 U-235의 농도를 높이는 장치다. 이 장비는 정전이 발생할 경우 연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IAEA는 한편, 포르도와 이스파한 등 이란 내 다른 핵시설에서는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러, 우크라이나 아파트 등 대규모 공습

최소 15명 사망·116명 부상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15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17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러시아가 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미사일 32발과 드론 440대를 발사해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도 키이우의 피해가 특히 컸다. 키이우시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이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때려 수십 가구가 붕괴되는 등 민간 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 또 교육기관 등 중요 기반시설이 공습을 받았다. 이로인해 14명이 사망하고 99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범한 주거용 건물의 잔해더미 아래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아파트 건물 전체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데사 지역 당국도 드론 공격으로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포리자, 체르니히우, 지토미르, 키로보흐라드, 미콜라이우 등 여러 지역이 공습을 받았다.

한영혜 기자

이란 "최첨단 무기 동원"…대규모 이스라엘 공습 예고

이란이 17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대규모로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키우마르스 헤이다리 지상군 사령관은 "향후 몇 시간 내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맹렬

한 공격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다리 사령관은 "지난 하루 동안 정확도가 높고 파괴력이 강한 장거리 드론 수백대가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점령지에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전략적 위치를 표적으로 삼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IRNA는 이스라엘 방공망이

연동 체계가 해킹당해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을 향해 오펜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 당국이 전날 '방공호에 들어가지 말라'는 가짜 문자메시지에 유의하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성공적인 사이버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예드림 교회(JESUS DREAM CHURCH) 이전 입당 감사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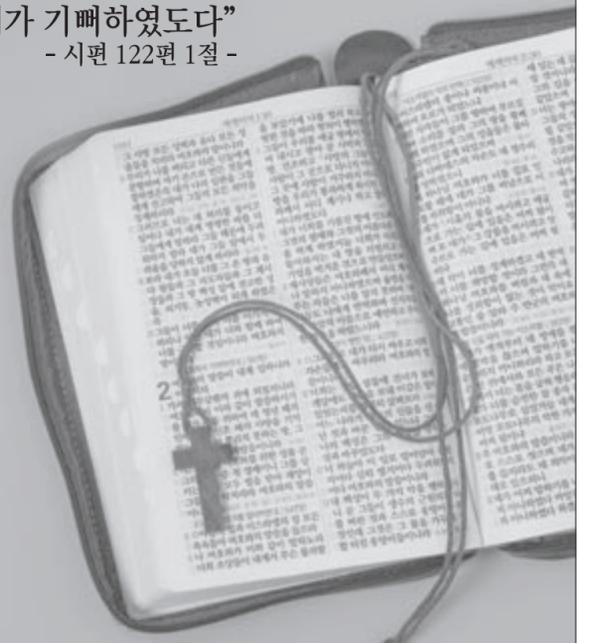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 시편 122편 1절 -

예드림 교회가 지난 3년의 알렉산드리아 예배 처소에서 페어팩스 시대를 열고 이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 감사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5년 6월 22일 (일) 오전 11시
- 장 소: 헤리티지 신학교 건물 2층
11240 Waples Mill Road, Suite 200, Fairfax, VA 22030
- 문 의: 571-263-7637

* 예드림 교회 정기 예배시간: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중예배 (화): 오후 5시 30분
아침예배 (화~토): 아침 6시 30분

예드림 교회 담임목사 이태봉, 시무장로 강남중, 황성수 및 성도 일동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수익 40% 운용사 줄것” 김건희 녹음, 검찰 확보

도이치 관련 주가조작 시기 통화 김건희, 조작사실 인지했을 정황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펠인베스트먼트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블랙펠인베스트먼트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2차 작전(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을 주도한 컨트론타워로 지목된 곳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이뤄진 2009~2011년 통화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은 물론 2차 작전 시기가 포함된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

고 있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펠인베스트먼트에 40%가량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배경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블랙펠인베스트먼트 측에 자신의 계좌 운용을 맡긴 대가로 수익금 중 상당 비율을 ‘성과금’ 차원에서 지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자산관리사 등에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길 경우 합의에 따라 투자 수익 중 일부를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 비율을 40%까지 약속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와 블랙펠인베스트먼트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서초구 사무실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확보한 핵심 정황증거를 기존 1·2차 수사팀이 놓치고 있었던 점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돼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4년 넘게 수사

가 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의문을 표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 3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김건희씨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은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수익 분배를 직접 언급하는 등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새롭게 확보된 만큼 조만간 수사 준비를 끝내고 공식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관련 내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6일 김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한 데다 극심한 우울증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수민 기자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한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꺼냈다

(김주현)

김건희, 도이치 조사 전 30분 통화 민중기 “대면조사 이뤄지리라 생각”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17일 불거졌다. 전날에는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비화폰 통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포리를 물며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8분쯤 김 전 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7분49초 동안 통화했다. 이어 오후 4시29분에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했다고 한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울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비공개 소환해 대면 조사(지난

해 7월 20일)하기 17일 전이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와 민정수석이 30분 넘게 통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검찰 출신인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씨의 비화폰 사용은 국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김주현 민정수석이 윤석열·김건희의 법률 대리인으로 각종 수사 무마에 앞

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만큼 경우에 따라 피의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거나 바꾸기 수사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전해졌는데,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앞둔 시점이었다. 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퍼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김 원

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짝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했다.

다만 통화 기록만으로 통화 내용까지 특정할 수 없는 만큼 ‘바꾸기 수사’ 의혹 등 실제 규명을 위해서는 김 여사뿐 아니라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당일인 지난해 7월 20일 오전과 김 여사의 검찰 수사가 끝난 직후인 7월 21일 새벽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의혹도 갖고 있다.

양수민 기자

늦어지는 장관 인선… 여권 핵심 “김민석 총리 취임 뒤로 미뤄둔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일이 됐지만, 장관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도 캐비닛(그림자 내각)을 준비 안 했다던 건가”(여권 관계자)라는 의문을 품는 이가 적잖다.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조각이 더 빨랐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날인 2017년 5월 11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을 지명하면서 속도를 냈다. 취임 8일째인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어져 한 달 만에 1차 지명은 거의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늦어지는 건 외견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주요 공직 인사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가 이유다. 일주일간의 추천 절차가 16일로 끝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등을 받고 있다.

속사정은 따로 있다. 여권 핵심 관계

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로 장관 인선을 미뤄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권 2인자인 김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낙연 초대 총리 취임

때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인 유일호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일간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에야 내각 인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 열린다.

인사 실무를 주도하는 ‘성남-경기라인’ 과부하도 지체 이유로 지목된다.

윤지원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aetna | Anthem HealthKeepers Plus | MOLINA HEALTHCARE | Sentara Health | United Healthcare Community Plan

Cheltenham Homecare | **첼튼햄 홈케어** |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 “신청부터 승인까지” |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 문의 전화: 800-764-1005 |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김원근 변호사 |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에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MoMA + 뉴욕 당일투어

모마 미술관
도슨트(작품 설명)포함
6월28일(토) \$149



Windy City ~ 대형버스

시카고 하이라이트

보타니컬 가든/밀레니엄 파크/네이비피어
360 시카고 전망대/아키텍처 크루즈/
클리브랜드 락앤롤 명예의 전당

3박4일 7/12(토)-7/15(화) \$1,099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VIP버스 나이아가라, 몽트랑블랑 & 퀘벡

나이아가라/몽트랑블랑/퀘벡/오저블케이즘
7/3(목)-7/6(일)
3박4일 \$950

스모키마운틴

딕시타운 디너쇼/
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7/4(금)-7/6(일)
2박3일 \$899

독립기념일
스페셜



찰스톤/올랜도/마이애미/삿소 바하마 크루즈

8박9일 2026년 1/16(목)-1/24(토)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볼티모어 출발, 인솔자 동행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6/19 마감!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7/16, 8/6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7/28 마감!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400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서유럽3개국 마감입박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월)
\$4,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낭만의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9/30(화)-10/7(화) \$2,890 항공불포함

크로아티아 & 이태리 돌로미티 이지 트레킹
7박8일 10/6(월)-10/13(월) \$2,990 항공불포함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5(수)-10/26(일)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19(일)-10/31(금)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7/1(화)-7/14(일) 북유럽+발틱 13박14일	마감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8/1(금)-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일 14박15일	마감
8/1(금)-8/13(수) 아프리카 12박13일	마감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란드 12박13일	\$12,900
8/7(월)-8/17(일)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란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마감
9/8(월)-9/21(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중양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조앤 한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30(화)-10/13(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13박14일	\$4,890 애나 김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동유럽 7박8일	\$2,890

10/6(월)-10/13(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7박8일	\$2,990 애나 김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마감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인솔자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11/6(목)-11/18(화)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11(화)-11/20(목) 카이로, 멤피스, 아스완-아부심벨-아스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090 데이빗 한
11/26(수)-1/30(일) 맹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 \$2,090 세라 정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3박14일	\$6,590 재키 조
12/1(월)-12/12(금)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2026년 1/10(토)-1/19(일) SMALL GROUP TOUR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9박10일	\$5,090 조앤 한
1/16(목)-1/24(토)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NEW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인솔자
1/29(목)-2/8(일) 신비의 복인도 10박11일 여행	\$3,490 재키 조
1/29(목)-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2/9(월)-2/14(토) 발칸반도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 \$2,190 세라 정
2/9(월)-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조앤 한
2/13(금)-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3,980
2/17(화)-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2/23(월)-3/22(일) 남미 일주 27박28일	\$18,850
2/25(수)-3/5(목) 페루 일주 8박9일	\$3,595

3/5(목)-3/15(일) 파타고니아 10박11일	재키 조
3/5(목)-3/19(목)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3/23(월)-4/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4/9(목)-4/17(금)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 8박9일	세라 정
4/12(일)-4/21(화) 국공의 봄, 남해 맛 기행 +제주도 9박10일	재키 조
4/20(일)-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4/20(일)-5/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애나 김
4/28(일)-5/6(수) 사실리 섬 + 몰타 10박11일	\$4,950 재키 조
5/4(월)-5/14(목)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세라 정
5/24(일)-6/4(목)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11박12일	재키 조
6/14(일)-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11박12일	재키 조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대통령, 남아공·호주 연쇄회담…오늘은 이시바 만난다

G7 확대세션 뒤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건설적인 대화 기대”
귀국 뒤 여야 원내대표 만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 도착해 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멈춘 정상 외교를 복원한 것이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당초 한·미 양국은 17일 G7 확대세션이 끝난 뒤로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를 이유로 16일 밤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미·호주 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통상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는데,

불가피하게 추후 대면으로 미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근접한 다음 계기를 통해 (회담을)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4~25일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때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은 17일(한국시간 18일) G7 확대세션이 끝난 뒤 열린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으로,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나가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의 여러 문제도 있고 현안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끌고감으로써 그런 선순환 분위기 속에서 이견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열린 마타펠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와 정상회담에선 경제 협력 방안을 비롯한 양국 교류 발전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캐나다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리셉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현동 기자

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특히 자원·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다”

며 한·호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자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가오는 APEC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캘거리=오현석 기자

18분 기내간담회 “관세협상, 타국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야”

이 대통령 전용기서 첫 간담회
“외교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 돼야
대한민국 정상화 보여주려 참석”
김민석 의혹엔 “청문회서 설명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G7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긴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라는 것이 한 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조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취임 12일 만에 해외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고, 국내 문제도 많아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8분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역시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금) 소비 진작 측면이 강하다면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소득 지원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봐도 좋겠다”고 말했다. 캘거리=오현석 기자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외교무대 데뷔

연노랑 치마·녹색 저고리 갖춰입어
대통령실 “사진 요청 꽤 많았다”

김혜경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각국 정상 부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여사의 한복이 주목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 여사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G7 초청국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캐나다 앨버타주(州) 대니얼 스미스 총리가 주최한 행사의 드레스 코드는 전통 의상 또는 서양식 정장이었다. 김 여사는 연노랑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를 갖춰 입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빨강·파랑·하양이 섞인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의상을 입은 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사진을 찍기 위해 대통령 내외분 주변으로 점

근하고, 사진을 찍어 달라는 분이 꽤 많았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을 대상으로 열린 리셉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G7 회원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리셉션에 이어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도 열렸는데, 이 대통령 내외는 이 자리에도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캐나다로 출국할 때도 눈에 띄었다. 김 여사는 민트색 계열의 정장 원피스를 입고 출국길에 올랐다. 전용기(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이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도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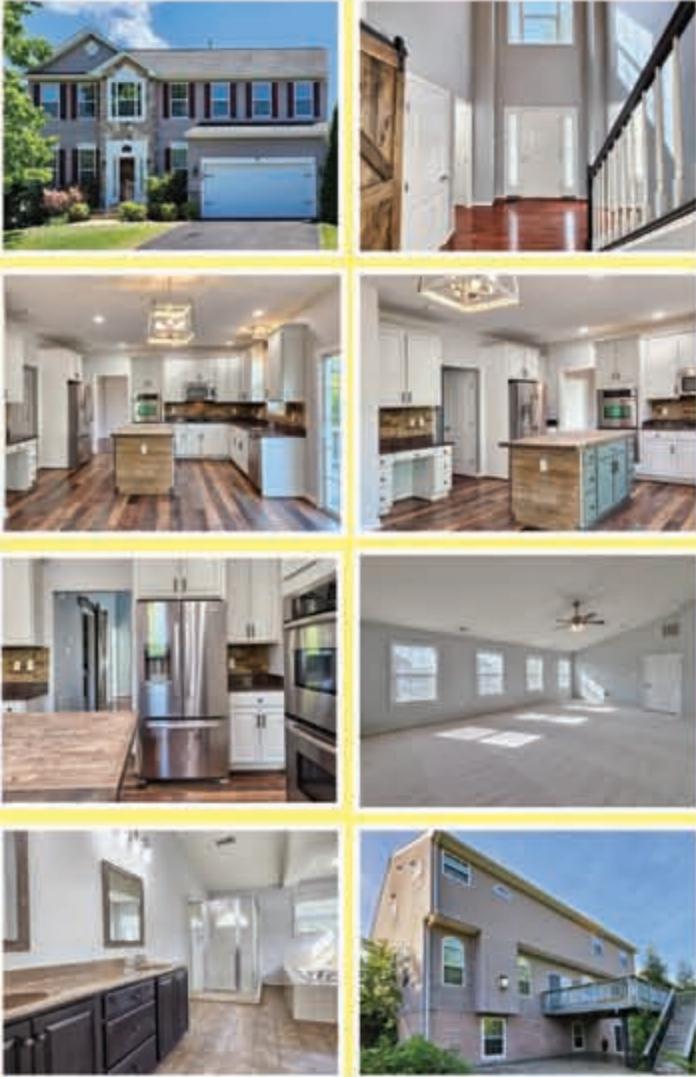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옆에 서서 함께했다. 대선 기간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

윤성민 기자, 캘거리=오현석 기자

It's Okay,
with
Jesus!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독점 Dumfries 타운홈

포토백강이 보이는 골프 단지에 위치한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방4, 화장 1/2, 2022년 지어진 집, 4층 구조, 럭셔리 부엌, 나무 마루, Double Deck, 최고급 빌더 (Stanley Martin) **\$625,0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장 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김정은 러에 3차 파병, 공병 6000명 보낸다

김만난 러 쇼이구, 면담내용 공개 쿠르스크 지뢰 없애고 인프라 재건 러 점령한 다른 영토에 투입될 수도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가 한때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는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난 뒤 자국 매체 기자들에게 이런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1000명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공격

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전시 상호 원조' 조항(4조)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조약 4조는 "상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의 침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쿠르스크의 재건 작업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당 병력의 임무가 전장에서 장어물 운용이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전투 공병이 아닌 재건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도네츠크와 같은 다른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 서기(가운데)가 17일 평양국제공항에 도착, 북한 당국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2주 만에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했다. [연합뉴스]

지적이다. 앞서 양국이 지난 4월 그간 숨겨왔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부터 이런 추가 파병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더 과감한 추가 파병은 신조약 4

로 인정할 때부터 이런 추가 파병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더 과감한 추가 파병은 신조약 4

조를 근거로 파병을 정당화하려 한 시도에도 맥이 닿아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1차로 1만9000여명, 올해 1~3월 2차 3000여명 등 총 1만4000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인력을 추가로 공병으로 파병하는 셈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쇼이구가 지난 4일 방북 당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날 다시 방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실제 이행하기 위해 이날 쇼이구가 불과 13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이 전쟁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요청한 만큼 이후 다양한 군사물자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날 밤 사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정영교 기자

'물' 컨트롤타워 띄우는 국정위... 4대강 보 해체 포석?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 확대 검토" 농림·산자부 등 분산 업무 일원화

국정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漿) 철거 등 국가 물 분야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는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정책 현안 결정, 물 관련 분쟁 조정 등 '물 관리 일원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었지만 실질적 권한이 적어 허울뿐이란 지적이 컸다. 이 때문에 아직도 공업 용수는 환경부가, 발전용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는 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처마다 권한을) 정리할 건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구상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

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취지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나선 이후 '환경 파괴'와 '수자원 관리'란 명분이 충돌하며 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자체를 취소해 대못을 박

았다. 이 결정을 다시 취소하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19일 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업무 보고에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사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8~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의 첫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하에 ▶국정비전 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재정개혁 TF 등 5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규태 기자

'근로자 사망' SPC삼립 29일 만에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SPC 본사 등 12곳을 17일 압수수색했다.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본사 건물에서 안전과 보건, 설비 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관 등 80여 명을 투입해 사고 29일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앞서 세 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혜연 기자

김민석 "美문화원 농성 불참... 대선 패한 야당 지명반대 이해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서울 미국문화원 접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그 농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 학생회 대표이자 서울대 학생회장으로서 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미국 문화원 측이 음식과 물을 잘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와 미국 측의 통역으로서의 사를 전달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 인요한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미국문화원 접거 농성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1985년 5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5개 대학교 학생들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으로 김 후보자는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그 시기(서울 미국문화원 접거 당시)를 회고할 현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라는 물음에 "당시 내 입장과 지금 미군 감축에 대한 의견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를 포함한 학생들의 요구는 미국이 전두환 군사독재, 광주 학살자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그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독재

자들의 광주 학살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이번 2025년 빛의 혁명 당시에도 미국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정치활동을 하는 데 20대 학생운동이 미친 영향은 깊고, 그 긍정적 영향은 오늘에도 남아있다"며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시절 시민운동을 한 것, 비즈니스를 한

것이 대통령이 된 이후 민주주의 신념으로 남고, 규제개혁 신념으로 이어진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겠나"라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에서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술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목	매매 및 렌트	사업체 매매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SALE \$1,999,900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델리엄(DC) \$150K
1631 Cecile St, McLean, VA UNDER CONTRACT \$1,430,000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ALE \$1,315,000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용 매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2325 9th St, S, Arlington, VA SALE \$925,000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ALE \$501,000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신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패어팩스 지역 북-어머 나을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6-7월 말 입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던 나을 주택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 초 입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6867 Williamsburg Pond Ct, Falls Church, VA NEW	7/28 입주가능 RENT	\$4,950 해리스-콜리우 중-액셀리 고층, West Falls Church 학교 근처 50 인원과 좋은 단지, 99% 마에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NEW	7/1 입주가능 RENT	\$5,800 월 4, 학 3.5, 맥클린 내 유망하게 수명 있는 단지, 맥클린 다문화, 교통/상업 편리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NEW	주인이 살고 있어 입주 의논 가능	\$3,500 로복다 렌드, 학 3, 학 2, 커먼 룸, 집 전체 리모델링, 새 가전, 교통/상업 편리, 좋은 학교
1540 Hampton Hill Cir, McLean, VA PENDING	4년 RENT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없이 바로 연결
1430 Lady Bird Dr, McLean, VA NEW	2+2년 RENT	주재민,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So Happy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NEW	1+1년 RENT	크레딧 좋은 외국인 가족, 공실없이 바로 연결
9690 Scotch Haven Dr, Vienna, VA NEW	2년 RENT	주재민,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주인+세입자, 무명 지원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NEW	2년 RENT	주재민,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연결, 현 다음 세입자, 무명 지원

리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의 30여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두뇌수지 적자 비상... 'HBM 아버지' 제자들도 한국 떠난다

〈전문인력 해외유출 > 국내유입

HBM(고대역폭메모리)은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핵심 부품이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연구실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김 교수의 제자들은 상당수가 국내에 남기보다 구글·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취업을 선호한다. 높은 연봉은 물론이고, 개방적인 문화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시스템 때문이다. 말 그대로 '두뇌 유출'의 현실이다.

AI 인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정부가 초대 AI미래기획수석(AI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발탁하고, AI 분야

대한상의 SGI '인력 유출' 보고서 1만명당 AI인재, 독일 2.13명 늘때 한국 0.36명 줄어 OECD 최하위권 연구서열이 우선, 유능할수록 떠나 "성과연동 급여 등 보상 강화해야"

빠져나가는 AI 인재

단위: 1만 명당 순수출입, ※2024년 기준



다. 하지만 한국은 AI 인재가 0.36명 빠져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상의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 100조원 규모 민관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다. AI·반도체·2차전지 등 전문 분야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두뇌 수지는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에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을 뺀 값이다.

상의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과학 기술 분야 대졸 전문인력은 2019년 12만5000명에서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었다. 두뇌 수지 적자 폭은 같은 기간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2022년부터 글로벌 AI 붐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만큼 두뇌 수지 적자 폭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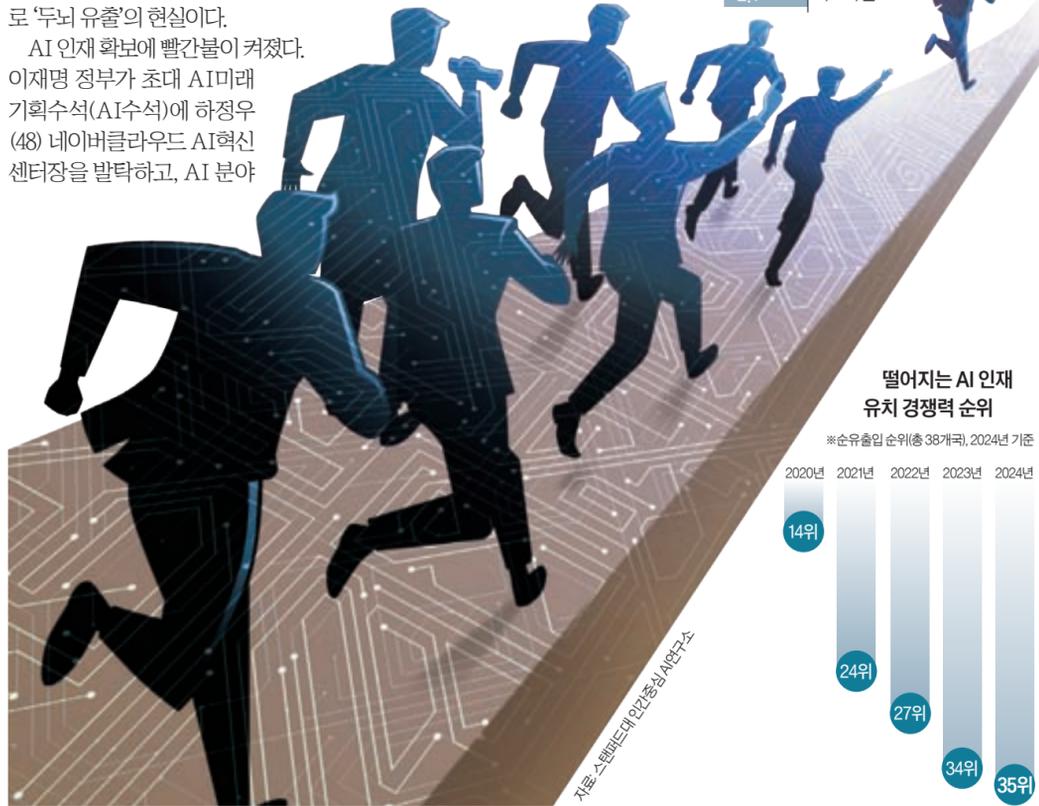
AI로 분야를 좁혀본 국제 성적표도 비슷하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룩셈부르크가 8.92명 늘어 가장 많았다. 독일(2.13명), 미국(1.07명), 캐나다(0.95명) 등도 AI 인재가 몰려들었

고급 인력 유출은 곧 국력 손실이다. 국내 대졸자 1명에게 드는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등 세수(국세 수입)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따져도 1명당 5억5000만원가량 손해다. 사교육비를 포함하지 않은 데다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의는 인재 유출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 평가체계 ▶연구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실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역으로 ▶성과에 연동한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근로제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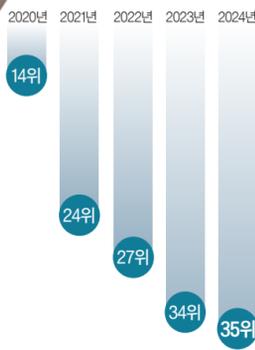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세계 3대 강국' 등 공약을 달성하려면 젊은 혁신 인재의 유치와 육성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두뇌 확보)'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떨어지는 AI 인재 유치 경쟁력 순위

※순유출입 순위(총 38개국, 2024년 기준)



기업하기 어려워진 한국, 국가경쟁력 7계단 하락

69개국 중 27위, 1위는 스위스
비상계엄에 경제 불확실성 영향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으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세계 기업인의 평가가 큰 폭으로 낮아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지난해(20위)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박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44위로 21계단 급락했다. 그만큼 세계 기업인이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설문 결과로 판단하는 항목 중 기업의 민첩성 순위는 9위에서 46위까지 떨어졌고, 기업의 기회·위기 대응 항목도 17위에서 52위로 하락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한국 기업에 큰 위협 요인이라 평가가 반영됐다.

기업과 달리 정부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조세 부담이 낮을수록 순위 상승) 항목 평가가 개선되는 등 조세정책(34~30위)과 재정(38~21위) 분야 순위가 올랐다.

그러나 설문 결과 정치적 불안정 항목 순위는 50위에서 60위로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여파다. 성별 실업률 격차 항목도 21위에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025년 69개국 중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2025년 4대 분야 부문별 순위

부문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순위	11위 (16)	31위 (39)	44위 (23)	21위 (11)

서 33위로 악화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의 순위 하락 원인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과 신인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무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가 순위에선 스위스가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도 2위로 내려앉았고, 홍콩이 지난해 5위에서 올해 3위를 차지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인천공항 확장과 가덕도·TK신공항 '합수' ... 이참에 정리를

국토교통부가 4년 전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항공 여객수요는 총 2억7187만 명이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제 여객이 1억8538만 명이고, 국내 여객은 8649만 명이다.

국제 여객만 따져보면 인천공항이 1억4971만명으로 81%를 차지한다. 그런데 인천공항에다 김포·청주공항 등 다른 공항의 국제 여객을 다 합쳐도 1억 6100만 명밖에 안 된다. 약 2400만 명이 모자란다. 신공항을 추진 중인 부산과 대구의 예측치가 빠진 탓이다. 김해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 대구공항 대신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의 예상수요는 따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추정됐다.

그럼 두 공항의 예상수요까지 합하면 어떻게 될까. 2년 전 고시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과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TK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보면 가덕도신공항은 2050년 기준으로 국제 여객이 2000만 명, TK신공항은 870만 명이다. 이를 앞선 공항별 국제 여객 예상치에 보태면 1억8970만 명으로 전체 전망치(1억 8538만 명)보다 오히려 430만 명이 많아진다.

화물 수요 전망도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항공화물 수요는 총 787만 t으로 추정됐지만 인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등 개별 공항의 예상치를 합하면 821만t으로 더 많다. 얼핏 여객과 화물의 공항별 합계가 전체 전망치보다 큰 게 별 문제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여객·화물 수요 낙관적 분석 가능성

하지만 공항의 수요를 산정할 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기만 하는, 지나치게 낙관적 분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역의 요구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수치를 맞춰 공항을 만들 경우 과잉투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들 계획에는 국내외 항공사를 어떻게,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이렇게 복잡한 숫자 계산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인천공항 5단계 확장과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의 얽히고설킨 '합수' 관계 때문이다. 이들 세 공항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항사업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또 어느 공항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다른 공항의 앞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덕도신공항(왼쪽 조감도)엔 13조원이, TK신공항의 민간공항에는 2조 6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세 공항의 투자비만 총 22조 항공사 유치 등 희비 불가피 과잉투자 벗어날 재정리 절실 착공 전에 계획 냉철히 따져야

2년 전 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흥석진 미국 노스텍사스주립대 교수는 "공항을 크게 지어도 운항하는 항공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수요와 수익 등을 따져보면 인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모두에서 장거리 운항에 나설 국내의 항공사가 몇이나 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공항의 합수 관계를 정확하게 꼬집은 얘기다.

제3 여객터미널과 제5 활주로(3400m)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은 사업비만 6조원이다. 활주로 1개짜리 가덕도신공항에는 13조원이 투입되고, 군 공항 옆에 만들어지는 TK신공항(민간공항)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거의 22조원 규모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적 항공사들도 수요 등을 볼 때 이들 공항에 모두 장거리 항공편을 띄우기 쉽지 않다는 게 항공업계 및 학계의 관측이다. 이렇게 보면 무안·양양공항처럼 막대한 투자만 하고, 비행편은 별로 없는

한산한 공항이 또 등장할 공산도 있다.

"전체 항공수요 정확한 추정부터 해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둘러 세 공항의 합수를 재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직 3개 사업 모두 착공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계획대로 모두 투자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갈지, 규모와 역할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다시 따져보자는 얘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회장)는 "지금 상황은 마치 각 도시의 계획연구를 합하면 1억 명이 넘어가는 것과 유사하다"며 "전체 항공수요를 먼저 추정한 뒤 급변하는 국내의 사회경제 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도 "개별공항에 대한 타당성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공항의 여객 및 물동량을 연계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정우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1팀장은 "정부에서 2개 또는 3개의 중심 공항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전에 결정된 투자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5단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천공항은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항공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고, 우선은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투자를 미루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연명 한서대 항공부총장은 "공항산업에서 최대 경쟁상대는 중국과 일본이고, 우리의 대표 선수는 인천공항"이라며 "경쟁에서 이기려면 적기에 투자해야 하고, 가덕도신공항 등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인천공항의 앞길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9월 말 예정)과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11월 말 예정)에서 항공산업과 수요 전망, 이와 관련한 노선 정책과 지역발전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항공 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논란이 되는 공항 개발계획이 총체적으로 다뤄져 공항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결정되었으면 한다"며 "어쩌면 공항 계획을 올바르게 재정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은 일단 짓거나 확장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그만큼 냉철한 정책 판단이 절실하다. **강갑생 기자**



인천공항은 제5 활주로나 제3 터미널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인천공항공사)

외교부 "이란서 신속히 출국하라"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이란에 한국인 100여명 체류 중 이스라엘은 전 지역에 경보 발령

외교부가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분쟁이 닷새째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기존 이란 일부 지역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란 전 지역이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남아 있던 이란 내 일부 지역을 전부 3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여행경보는 총 4

단계로, 1단계는 일상적 유의, 2단계는 여행 자제, 3단계는 철수 권고, 4단계는 여행 금지의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달라"며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

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한국인 1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이란에 있는 한국인과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철수 계획은 없다고 한다.

한편 외교부는 오후 8시부터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령됐던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이스라엘 전 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 또는 4단계로 지정됐다. 전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한국 교민 500여 명 중 23명은 버스를 타고 육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박현주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매매	<p>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p> <p>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분방 4+ 화장실 3.5, 렌트 수익 \$2,900</p> <p>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분방 3+ 화장실 2.5, 렌트 수익 \$3,000</p> <p>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분방 3+ 화장실 3.5</p> <p>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분방 3+ 화장실 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p>
렌트	<p>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p> <p>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 3+ 화장실 3, 차고 2, 입주 6월</p> <p>첸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 3+ 화장실 3.5, 차고 2, 입주 4월초</p> <p>우드브리지 \$3,200 방 3+ 화장실 3.5, 차고 2, 입주 3월초</p> <p>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 2+ 화장실 2, 즉시 입주</p>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교통사고 치료 전문



머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중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테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i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그의 인생 '역정'은 인생 '역전'!

중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흙수저' 소년공이 결국 대통령에 올랐다. 이렇게 극적인 인간 승리의 주역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언론 매체에 그의 인생사를 조명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는 온갖 고난을 이겨낸 그의 '인생 역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뒤 온라인상에는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인간 이재명의 삶이 마치 드라마 같다" "쓰라린 역정을 견뎌 낸 그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하다" 등과 같은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런데 "고된 인생 '역전'을 이겨 낸 그에게 박수를 쳐 주고 싶다"에서와 같이 '역정'을 써야 할 곳에 '역전'이라고 쓴 게시글도 종종 눈에 띄었다.

한때 로또의 슬로건이었던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 때문인지, '인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뒤에 '역전'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그러나 사실 '인생'과 더 많이 짝을 이루는 단어는 '역정'이다.

'역정(歷程)'은 '지날 역(歷)'과 '길 정(程)'이 만나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즉 걸어온 발자취를 나타낸다.

'역전(逆轉)'은 '거스름 역(逆)'과 '구름 전(轉)'이 만나 형세가 뒤집히거나 형세를 뒤집는 것을 뜻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라틴계의 외침이 우리에게 묻는 것



최인성 사회부 부국장

‘포춘(Fortune)’

부를 뜻한다. ‘성공’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회’와 ‘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이 불우한 이웃과 가정들을 지칭하며 ‘Unfortunate’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냥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하기 보다는 ‘기회나 운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동등한 교육을 비롯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다 보니, 앞서가지 못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또는 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퍼튜니티(Opportunity)’는 ‘기회’다. 비슷한 ‘챌스(Chance)’와는 무게감이 다른 말이다. 사전의 준비와 계획, 노력 등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설정하는 단어이며, ‘Chance’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적 의미(Semantics)를 갖는 단어다.

미국은 이런 ‘기회’가 장점인 곳이다.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다 보니 맨주먹으로 정착해 성공한 스토리는 전 세계에 항상 울림을 준다. 그래서 미국은 출공 ‘기회의 땅(Land of opportunity)’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독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미국 땅에 발을 들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1950~70년대 초기 이민 선배들은 이런 기회에 다가가기 위해서 굶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다. 아이들 교육에 열정을 다했으며, 미국 사회에 필요한

한 발짝 물러나 이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주어질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안에 매우 많은 요소와 조건들이 아직 요원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평등과 균등의 사회를 지향해도 항상 계층적 구분과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라틴계도 더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테다. 더 기회를 달라고, 차별하지 말고 대접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믿을 만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말이다. 그래야 미국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조건이 있다. 당분간 지속할 시위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경관 대상 폭행, 약탈, 절도 등 폭력적 또는 불법적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자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길거리 시위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캠페인이나 계몽운동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인들도 기억할 것이 있다. 라틴계 이웃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보다 공활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아시아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었다. 목소리를 높인 결과 이젠 가주 내 한인들 소유 골프장이 수십 개에 달한다.

라틴계도 그런 새로운 기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번 라틴계의 시위는 현재의 미국이 여전히 기회의 땅인지 여부를 보여 줄 것이다.

J네트워크

전선 넓어지는 트럼프의 ‘반엘리트 전쟁’



김형구 워싱턴총국장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부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까지 총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등 최소 21명 이상의 연방 대법관을 배출해 단일 로스쿨 중 가장 많은 대법관을 길러낸 미 최고의 명문대학. 그 하버드대가 계속 봉변을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방 보조금이 끊기고, 비록 법원 제동이 있었지만 외국인 유학생 비자 승인 프로그램이 취소될 뻔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버드를 정조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전쟁’ 이면에는 하버드를 정점으로 한 미국 엘리트 고등교육과 그 구조를 지배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뿌리 깊은 반감이 있다.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에 매몰돼 미국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급진 좌파의 진앙이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기본 인식이다. 미국 사회 엘리트 계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끈질긴 공격에는 하나의 지속적인 맥락이 감지된다. 집권 1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두 개의 ‘반엘리트 전쟁’ 중 하나는 언론, 다른 하나는 워싱턴 DC 정부 관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고, 제도권 언론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등 언론 엘리트와의 디커플링을 시도했다.

또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워싱턴의 관료 집단

을 ‘딥 스테이트’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정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관료 집단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했다. 대중과의 소통을 증대하는 언론 엘리트, 정권의 손발이 되는 관료 엘리트와의 전쟁에 이어 하버드로 상징되는 지식권력 엘리트와의 전쟁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29일 졸업식이 열린 하버드대에서 만난 이 학교 강사 라라 저메니스는 “250년 이상 잘 작동해 왔던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의 자유”라며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버드를 때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들기 불편한 진실’이 공표되고 연구되는 시스템이 권력의 공격을 받으면, 사회는 질문을 멈추고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언론·관료·교육기관이 연이어 정권과 극한 갈등에 휩싸이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틴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애넌데일 싱글 \$749,000 Braddock/Backlick Rd 면하는 Giant 인근. 최고 학교(이전 방 3, 화 3, 커뮤지, 세차장, 드라이브웨이 4대차, 울음 2.31/25acre, 0.46acre, SOLD AS IS, 용사(세 번의 심판)이상 심판,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395/236/495/195/66	11. 센터빌 벅들타운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Hmart인근, 29/Braddock/28,66
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7.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좋은 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상당근처, 66/28/50/29	8.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13. 맥클린 콘도 1. \$300,000/2. \$409,000 1. 방 1, 화 1, 762sqft 2. 방 2, 화 2, 1,050sqft Mclean High, RT 495, 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음,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슬러 팩업, 6,228sqft	9.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달러스 공항	14. 찬들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매인/ 풀바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커 메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15.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용 미장원 오피,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점

“전투 중 잃은 팔·다리보다 더 아픈 건” ... 영웅의 한마디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거창한 인생 계획은커녕 아무 생각 없는 인문학부 전공 대학생이 있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갔다가 지게차 특기병이 됐다. 캠프에 가까웠는데, 4년제 다닌다는 이유로 당시(2001) 군이 도입한 CBT(컴퓨터 기반 교육훈련) 사업 담당으로 선발돼 다양한 장비와 무기 훈련에 쓸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했다. 재미있었다. 난생처음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 “웹 디자이너 돼야지.”

제대 후 복학해 이턴 공부를 할 수 있는 산업공학과로 전과하려 미친 듯이 학점을 찼다. 교수 5명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 한 교수가 말했다. “왜 들어오려고 그래? 귀찮게.” 실망스러웠다. “이 학과 미래가 없네.”

그렇게 유학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AAU)’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다 한 대가와의 이메일을 통해 사명감과 같은 천직, 사진을 만났다. 어릴 적엔 엄마의 피사체가 되기도 싫었지만 결국 사진작가로 거듭나 전 세계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찍는 라미 현(46·현호제)의 인생 전반기 이야기다.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선 여러 좋은 스승을 만나 사진에서 빠졌다. 귀국 후엔 인생 방향을 바꿔준 군과 운명처럼 다시 연결돼 생업까지 잡고 국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 기록하는 ‘프로젝트 솔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그 까다로운 공항 출입국심사대조차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KWVA) 공식 레터를 보면 화물을 싣듯 날라졌고, 교통경찰은 속도위반 딱지 대신 경의를 표했다. 누구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지만 중요했다. 한국은 정반대였다. 어쩌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비로 하는데도 고마움 표시 대신 그의 사진에 부처 이름 달아 보도자료 뿌리며 저작권 인정조차 안했다.

지난달 23일, 그리고 지난 11일 현 작가가 또 자비 6억원(후원 3억 포함) 들여 마련한 6·25 발발 75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는 서울 논현동 에스케이콘서트홀에서 만나 왜 그토록 참전용사 촬영에 진심인지를 듣고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스승 무모한 배움

사진 인생의 시작은 무모한 이메일 한 통이었다. 할리우드 영화 특수효과 라이팅으로 유명한 한 대가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다. 당선처럼 되려면 될 하면 되느냐고, 답이 왔다. “넌 안돼(You can't). 빛을 볼 수 없으니까.” 두어 번 이메일이 오간 후 이런 제안이 왔다. “사진을 찍으면 빛·구도·색을 배울 수 있어. 셋 다 하긴 어려우니 색을 빼. 흑백사진 10만 장 찍은 다음 연락해.”

학교 갈 때, 밥 먹을 때, 그야말로 모든 걸 찍었다. 하루 수백장, 그렇게 1년에 13만장을 찍다 보니 비로소 이해가 갔다. 예민해진 눈으로 키운 관찰력이 잘 드러난 사진 몇장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빛을 보는 능력이 뭔지 알겠어요.” 답이 왔다. “누구?” 어이없는 결말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진과 사랑에 빠져 전공을 바꿨다.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유명한 AAU답게 업계 대가 교수를 여럿 만났다. 상원의원이나 할리우드 셀럽 등 피사체마다 어떤 복장으로 뭘 선물하고, 심지어 악수나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시시콜콜한 노하우를 다 가르쳐준 마이클 어드만이 기억에 남는다. 1년에 나이기 등 한두 작업만 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영감 얻는 시간으로 채우는 제임스 우드는 더 인상적이었다. 그는 “고객 입맛 맞춰 돈 버는 사진업자가 아니라 사진작가(포토그래퍼)가 되려면 스스로를 채워야 한다”고 했다.

이 조언에 ‘내’ 사진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어 있으면 빈 게 나온다. 삶이 들어가야 삶을 찍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한 건 졸업 후 김종만 작가(1954~2022)를 만난 뒤였다. 장거리 연애했던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고 프리포즈하려던 파리에 충동적으로 간 작 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지인인 임기학 세프에게 선물했는데, 그의 레스토랑에 온 김 작가가 이걸 보고 날 찾았다. “네가 파리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아. 그리고 화내고 슬픈 감정이 정확히 담겼어.” ‘뭘 찍느냐가 아니라 ‘뭘 느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2010년 귀국하자마자 우연히 맡은 카드업체 바른손창립 40주년 기념 영상부터 한동일·신수정·이경숙·조재혁·김대진·손열음·조성진 등과 한 경기도 문화의전당 피아니스트 사진 작업, 서울대병원 외과 전공의 모집 홍보영상, 그리고 지금의 참전용사 작업까지 일관되게 이 깨달음을 녹였다. 수술이나 훈련 장면 대신 사람, 아니 삶을 중심에 뒀다.

군인, 무모한 존경

군 복무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도, 군과 군인을 무시했다. 2014년 무렵 육군 1사단 홍보 영상을 맡아 이병부터 대령까지 6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달라졌다. 당시 군 생활 28년 한 성우경 원사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인데, 아버지·남편으로서 부끄럽다”며 “나라와 부대가 늘 우선이라 못 간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며 눈물을 비쳤다. 나라 지키려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희생하는데 단편적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 내가 부끄러웠다. 성 원사뿐 아니었다. 가족여행은 고사하고 아이 출산 못 지킨 이가 대부분이었다. 꼭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들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 영상은 공식적으론 폐기됐다. 앞서 서울대병원 때와 마찬가지로 담당 중령이 훈련 모습, 무기 하나 없이 왜 군인이 됐는지 말하는 인터뷰로 가득 찬 영상을 보고 화가나 “당장 바꾸라”고 명령한 거다. 하지만 몇몇이 돌려보내다듬해 ‘대한민국 국군은 당신을 지킵니다’라는 편집본을 만들어 국

미국은 민관 모두 경의 표하는데 정부 할 일 자비로 해도 모욕만 “자유 가진 자는 자유 지킬 의무” ‘멸종위기 종족’ 기록하는 이유

마침 2017년 보훈처(현 보훈부)의 해외 참전용사 초청 소식을 듣고 당시 처장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첫 마디가 “당신 뭐야, 처장한테 뭘 한 거야”였다. 한참 설명하니 담당 공무원을 바꿔줬다. 그 공무원은 “안 돼요” 소리만 하다 마지막에 “누구 뺨으로 남의 밥상에 손가락 얹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후 딱 20분 촬영하고 다신 연락하지 마라”며 끊었다. 그렇게 13개국 40여 명의 사진을 찍었다. 모두 같은 눈빛이었다. 의문은 더 쌓였다. 답을 찾아야 했다.

자유, 무모한 도전

각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개인정보라 안된다는 똑같은 답이었다. 영국 대사관만 이메일 하나를 알려줬다. 찾아가서 만난 첫 번째 참전용사 알렌 가이었다. “30분쯤 시간 된다”기에 무작정 댄턴행 비행기를 탔다. 그의 집 버지니아워터로 가며 박대당할까 두려웠는데, 기우였다. 약속한 30분은 5시간이 됐다. 70년 가까이 흘러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 청년의 “감사합니다(Thank you for your service)” 한마디에 그는 17세에 처음 부산항에 도착해 시체 썩는 냄새가 실려 오던 죽음의 바람 공포를 이겨내야 했던 고단한 군 복무를 다 보상받은 거 같다고 했다. 몇 개국 몇 명 참전, 몇 년 휴전, 인천 상륙, 장진호 전투 등 전쟁을 숫자와 지명으로만 배운 나로서 처음 듣는 놀라운 인생 이야기였다. 한 달 뒤 사진을 액자에 담아 다시 찾아 그 지역 참전용사 30여 명을 더 찍었다. 사연도, 사진 한 장에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도 정말 감동적이었다.

전투 중 오른팔 잃고 후송 중 포탄 맞아 같은 날 오른 다리마저 잃고 20년 남게 더 복무한 미국 영웅 윌리엄 웨버(1928~2022) 대령은 말할 것도 없다. “빛진 걸 갖는 것”이란 내 말에 그는 “빛진 것 없다”며 “자유 가진 사람은 자유 없거나 잃게 된 이들의 자유를 지켜줄 의무가 있고, 참전은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또 “한쪽 팔·다리 없는 것보다 한반도 분단이 더 가슴 아프다”며 “이제 너희가 북쪽에 자유를 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웨버처럼 한·미 양국에서 영웅 대접받은 이들뿐 아니라 PTSD 시달려 가족과 멀어진 이들에게조차 한국전쟁은 자랑스러운 과거였다. 이들은 스스로 “자유를 권리 아닌 의무 삼아 싸운 멸종위기 종족”이라 입을 모았다.

매번 ‘마지막’이라 생각했지만, 2019년 아예 내 상업사진 스튜디오를 열고 장비 팔고 빛 쬐며 전 세계 참전용사를 찾는 건 자유를 위해 싸운 이 ‘멸종 위기 종족’을 더 많이 담고 싶어서다. 국내외 적잖은 후원자가 액자값이며 현지 숙박 등을 책임져 준 덕분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며 국내외 참전용사 25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2022년 캠핑가 물고 미 40개 주를 돌 땀 도착 당일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 서둘렀더라면... 눈물이 났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다. 더 늦기 전에 자유를 지킨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모아 이를 후대에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생각 없이 살던 나의 첫 인생 계획이 부디 이뤄지길.



현호제 작가를 지난 11일 한국전 75주년 회고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가 열리는 에스케이콘서트홀에서 만났다.

장진영 기자

군 29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내 작업도 군의 신뢰를 얻었다. 8·4 DMZ 지뢰도발 사건 당시 북한군 매설 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현 하사가 입원했을 때 의뢰받은 격려 영상 반응도 좋았다. 훗날 군 단체사진과 군 가족사진으로 이어졌다.

50여개 부대를 다니며 찍은 군복 사진은 2016년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최순실 게이트 와중이라 군 후원은 언감생심, 오히려 “군인 팔아먹지 마라”는 타박만 들었다. 한국군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산 소 참관차 방한한 미 해병대 참전용사 살바토레 스키타르가 우연히 들렀길래 포토존에 세웠다. 참전용사는 처음 봤는데, 찍는 순간 눈에서 자부심 가득한 광채가 나왔다. 이 제것 한국군 3000명을 찍었지만 못 본 눈빛이었다. 궁금했다. 자기 나라 위해 싸운 것도 아닌데 저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나.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 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	센터빌 타운홈	버크 싱글홈
	\$2,950	\$1.25M
	방3, 화2.5, 차고1, 굿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비 이민비자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Father's Day 이벤트

6/7(토) ~ 6/22(일)

구인

한식 주방장, 쿡
(숙소 제공 가능)

행사 기간 동안 **\$140 이상** 주문하시는
고객님께 **육회를 공짜로** 드립니다!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월~목, 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금~토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춘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Wednesday, June 18, 2025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피부 노화 늦추려면... '뽏드득 세안' 피하고 보습 인자 더하세요

피부 노화 늦추는 법

피부 관리 기준도 '저속 노화' 트렌드에 맞춰 바뀌고 있다. 저속 노화는 말 그대로 천천히 늙는 것을 뜻한다. 노화 자체를 거부하던 안티에이징(Anti-Aging)과는 달리 노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보습 인자를 채워 넣고, 세안 시 가해지는 자극을 줄여 피부 장벽을 지키는 식이다. 일상 속 사소한 습관만 잘 챙겨도 피부 노화의 시계를 늦출 수 있다.

선크림은 3시간마다 덧바라야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자외선에 지속해 노출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바르기다.

선크림을 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자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살필 부분은 자외선A 차단 등급인 PA와 자외선B 차단 지수인 SPF다. PA는 +의 개수가 많을수록, SPF는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조건 차단 등급과 지수가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하는 건 아니다.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한 만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실내에 머물거나 산책처럼 비교적 짧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SPF15, PA+ 이상만 돼도 적당하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된다면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적합하다.

선크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르는 방법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고르게 펴 바르고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약산성 클렌저로 피부 장벽 보호 천연 보습 인자도 보충해줘야

3~4시간 간격으로 덧바른다. 정해진 간격대로 덧바르기가 어렵다면 처음 바를 때 한 번 더 겹쳐 바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특히 스틱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약할 수 있어 여러 번 겹쳐 바르거나 두드려 준다.

보스피부과의원 김홍석 원장은 "자외선 탓에 햇빛을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 촉진하는 건 맞지만 햇빛을 아예 차단하면 비타민 D 부족이나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어 적당한 노출은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대신 야외 활동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처럼 자외선이 약해지는 시간대에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자외선 못지않은 피부의 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자극 물질은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의 수분 유지도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요소다.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탄력 저하, 주름 생성 등 노화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피부의 수분 관리는 올바른 클렌징으로부터 시작한다. 세안할 때 '뽏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이중, 삼중으로 세게 피부를 씻어내는 일은 금물이다.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피부 장벽을 손상해 수분 손실을 촉진할 수 있다. 대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약산성 클렌저와 미온수

로 부드럽게 얼굴을 닦아내도록 한다.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한다. 이때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롤 등 보습 인자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보습 인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은 흡습성이 뛰어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글리세롤도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특히 천연 보습 인자인 글리세롤은 피부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도록 돕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해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되게 하는 역할도 맡는다.

피부 세포 재생 시간 맞춰 숙면

만약 보습제를 써도 건조함이 유지된다면 피부와 시술을 고려할 만하다. 대표적인 게 스킨부스터 시술이다. 스킨부스터는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든다. 일례로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의 벨로테로 리바이브 스킨부스터는 피부 보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리세롤과 히알루론산을 모두 공급해 피부 건강을 개선한다.

아울러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브로콜리처럼 활성 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식품을 챙겨 먹고, 7-8시간 깊이 자도록 한다.

김 원장은 "특히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 노화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처럼 표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다"며 "20대 중반부터 수분 유지력과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니 이른 시점부터 관리에 나서길 권한다"고 했다.

하지수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센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엄마가 자꾸 뭘 물어요”... 그땐 몰랐던 ‘치매 골든타임’

FDA가 인증한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
중년 이후부터 보충해 치매 막아야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는 한국인이 암보다 두려워하는 질환이다. 치매는 가벼운 기억장애로 시작해 서서히 기억력·인지력이 떨어진다. 통계적으로 기대수명 83.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5명 중 한 명꼴로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 뇌 인지 기능 감퇴 속도가 빠른 정도 인지장애라면 두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중 매년 10~15%는 치매로 진행된다. 정상 노인의 치매 진행 비율은 1~2% 수준이다. 경도인지장애라면 상대적으로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은 치매 고위험군이다.

중년 이후부터 반복적 기억력 저하 현상이 있다면 경도인지장애일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20%는 65세 미만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보다 더 짧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일을 자주 깜빡하고 ▶방금 들거나 읽은 정보가 잘 잊어버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고 ▶같은 질문

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경도인지장애일 수 있다. 기억력 유지는 치매 예방의 핵심이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뇌 자극 활동, 사회적 교류 등으로 뇌 노화를 늦추는 활동을 실천한다. 기억력·인지력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뇌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된 두뇌 기능성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이 대표적이다.

▶뇌세포 연결망 강화해 기능 활성화 도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인 포스파티딜세린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든다. 뇌 속 포스파티딜세린이 줄면 뇌세포 간 신호 전달 속도가 둔화해 기억력 감퇴, 인지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중년 이후부터는 포스파티딜세린 보충으로 뇌세포 퇴행을 막고 뇌세포끼리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 뇌세포 연결망을 강화하면 더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억력·인지력 등 뇌 인지 기능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분비를 촉진해 뇌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치매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으면서 뇌세포 파괴를 억제한다. 이런 복합적 효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포스파티딜세린이 노년층의 치매와 인지장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라고 인증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다양한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기억력 감퇴, 인지력 개

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5~78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학습 인지력, 얼굴과 이름 연계 인식 능력, 안면 인식 능력 등이 개선됐다. 50~90세 남녀를 대상으로 매일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도 인지 기능, 기억회상, 실행 기능, 집중력, 정신적 유연성 등의 시험 항목에서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평균 60.5세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 전남 분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7.4년, 열 자리 숫자 암기 능력은 3.9년 연장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치매 노인도 인지력 개선 효과

은행잎 추출물(GBE·Ginkgo Biloba Extract)도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원료다. 은행잎 추출물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터페노이드 성분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뇌 혈류 개선을 돕는다. 은행잎 추출물도 포스파티딜세린처럼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돕는 아세틸콜린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져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 기억력 증진에 긍정적이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낮춘다.

권선미 기자

플페이스 필러, 한국 시술기술 집약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과 볼륨감이 떨어지고,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게 마련이다. ‘플페이스 필러’ 시술은 그동안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한인들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미용 치료법이다.

보통 필러 시술을 받을 때, 한두 부위만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플페이스 필러는 단순히 특정 부위 시술을 넘어서, 얼굴 전체에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는 시술이다. 얼굴의 여러 부위에 필러를 고루 사용함으로써, 더욱 탄력 있고 젊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플페이스 필러는 볼륨감을 되찾고, 얼굴 윤곽을 선명하게 하며, 주름을 펴는데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광대와 턱

선을 비롯한 주요 부위에 필러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얼굴의 구조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젊고 신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필러 시술을 고려할 때, ‘어떤 디자인으로 시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필러 시술은 단순히 주름을 채운다거나 볼륨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섬세한 작업이다. 단순히 필러를 넣는다고 해서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굴형에 맞지 않는 위치나 양으로 필러를 시술하면, 과도하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반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정교한 디자인 시술은 얼굴의 균형을 맞

추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변화를 선사한다. 개인의 얼굴 구조와 근육, 피부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필러 배치를 계획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술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필러 시술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우려한다. 요즘은 수면마취 옵션을 통해, 시술 중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필러 시술을 받는 동안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페이스 필러 선택 시 최적화된 마취 방법으로 시술 전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처음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많은 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다. 그만큼 한국의 필러 시술이 높은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용 의료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앞서고 있다. 특히 필러 시술에 있어 섬세하고 세밀한 접근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인으로서 한국에서의 필러 시술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세련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진은 동양인의 얼굴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더욱 적합한 시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페이스 필러 시술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디자인과 전문가의 기술이 중요하다. 시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우 원장 / 사인봄의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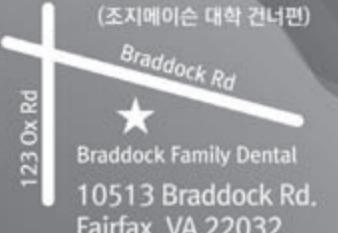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스트레스 이겨내는 첫 걸음, 3년 후 나에게 편지 써보기

윤제연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매일의 직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맞닥뜨리고 대처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쁨-보람-성취감을 통해 충전되는 정서적 에너지의 양보다, 상황대처-문제 해결-의무수행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지고 차츰 방전이 진행되고 지쳐갈 수도 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고 지금의 문제가 결코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도 있다. 격렬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경험하고 안절부절못하며, 빠르게 질주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파고들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고통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대신 심사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무모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절망감이 더욱 심화하여 삶의 종결만을 유일한 탈출구로 오관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행동전략**=이럴 때 우선 충동조절능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알코올 등의 물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알코올 등 물질의 ① 사용빈도 ② 1회 사용량 ③ 스트레스 기본 상태 등과 물질 사용 행동 사이의 관련성 ④ 물질 사용 시-사용 이후, 기분-생각-행동의 변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알코올 등의 물질이 컨디션 조절의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정서적 고통감이 절망감(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의 일시적인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급조절을 위한 건강한 행동전략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중 적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기억이나 유쾌한 장면을 떠올리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에게 연락하기 등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스트레스 어떻게 대응하나

행동전략

- 1 알코올 등 물질 섭취를 줄여야
- 2 긍정적 감정 경험할 활동 목록 확인, 지속적 실행
- 3 지인·전문가 등 사회적 연결망 유지 단, 버거울 정도까지 하지 말아야

인지전략

- 1 1년/3년 후 구체적 자화상 그리기, 이를 위해 어떤 준비-실행할지 생각 '나에게 보내는 편지'도 작성
- 2 현재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영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바꿔야 할 한두 가지 행동 찾기 '2주간 실천-재평가' 과정 반복
- 3 최근 한 달 간 가장 큰 스트레스 검토, 해결방안 모색, 의사 도움 권고



의 한 시점을 선택해서 낱씨를 적고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시점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본다. 어디에 있고 주변에 무엇이 보이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 본다. 이때 좀 더 만족스럽게 생활하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1년 후/3년 후의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작성한 후 읽어 본다.

두 번째로, 내 현재 삶의 주요 영역들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와 가치가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한다. 즉, 일/직업, 친밀한 관계(연애결혼 등), 양육, 교육/학습(개인적 성장), 친구관계/사회생활, 건강/신체적 자기관리, 혈연가족(원가족), 영성, 지역사회 생활/환경/자연, 오락/여가 등의 영역들에 대해 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② 지금의 만족도를 평가해 본다. 이 중 지난 2주의 생활 동안 '중요하게 여기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던' 생활영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③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1-2가지의 행동을 찾아서 다음 2주의 생활계획에 반영하고 실천하고, 2주 후 생활만족도를 재평가한다.

세 번째로, 최근 한 달간의 일상생활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 인지를 검토하고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황을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페이스 조절 방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는 법

미래 자화상 구체적으로 상상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기

성취감 주는 활동 3~5개 목록화

만족도 높으면 그 다음주 또 실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는 등의 책략을 자신에 맞게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서 조절의 책략이 상황 회피의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의 목록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내가 하루의 시간 동안 주로 참여하는 활동들의 목록을 만들고, 각 활동에 참여할 때 내가 경험하는 유쾌함과 성취감의 정도를

평가해 본다. 만약 최근의 일상생활에서는 유쾌하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잘 찾을 수 없다면,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지냈던 시기의 내 일과를 떠올려 검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① 상대적으로 유쾌함과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②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그리고 ③ 혼자 하는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을 고루 포함하는 활동계획을 3~5개 가량 추려서 목록화하고, 이번 주 혹은 다음주 생활계획표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행동계획으로 배정한다. 한 주 동안 행동계획을 수행하고, 각 활동을 해본 후 내가 경험한 유쾌함과 성취감의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본다. 이러한 만족도 평가를 고려하여 그 다음주의 생활계획에 반영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다.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지속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자신에게 충

전해주고 문제해결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를 위한 지인 및 전문가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기쁜' 느낌이 동반되어 버겁거나 ② 다른 사람들의 단편적인 표정-어조-말 등을 해석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혼란감을 겪거나 ③ 자신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산란한 기억-생각-감정들과 관련된 고통감을 중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게 되거나 ④ 사회 집단 속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대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버거움을 느껴서 다시 활동을 회피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인지전략**=행동만 아닌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첫 번째로, 1년 후/3년 후 미래의 자화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미래

전문의 칼럼 황원민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만성 콩팥병 환자, 대상포진 걸릴 확률 최대 8.4배 높아

(일반 성인 대비)

감염 이후 뇌졸중 등 합병증 위험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97% 예방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는 대상포진에 주의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일차 감염된 이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해 발

병한다. 만성 콩팥병 및 혈액투석 환자는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일반 성인보다 1.4배, 복막투석 환자는 3.6배, 신장이식 환자는 무려 8.4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당뇨병·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리면 투석 치료가 필요한 말기 콩팥병 진행

위험이 8.7배 이상 증가한다. 감염 이후 뇌졸중이나 급성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도 각각 2배, 1.4배 이상 높아진다.

생백신 형태의 대상포진 백신은 만성 콩팥병 등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예방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한계가 있

다. 최근 등장한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면역저하 환자에게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임상시험 결과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에서 97%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 만성 콩팥병,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도 예방 효과가 85~97%에 달했다.

이런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 신장학회·대한신장학회 등 국내외 학

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만성 콩팥병, 투석, 신장이식 환자에게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날이 더워지는 여름엔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아진다. 열이 나면서 전신 피로감이 심하고 몸통-어깨를 중심으로 띠 모양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하다면 대상포진에 의심해야 한다. 콩팥 기능 보호를 위해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으로 전체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14 ~ 7/18 → 전화 예약 필수!

<p>Centreville (Main Office)</p> <p>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p>	<p>Annandale (사랑방)</p> <p>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p>	<p>Annandale (V)</p> <p>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p>	<p>Gaithersburg (MD)</p> <p>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p>
--	---	--	--

건강 칼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배우자와 함께 수면 문제를 상담하러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의 문제는 매우 심한 수면 중 코골이였는데, 환자는 젊어서도 간혹 코를 골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특히 잠을 자는 중에 호흡을 멈추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환자의 배우자는 코고는 가운데 갑자기 호흡을 멈추는 남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였다.

환자 본인도 언제 부턴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매우 피곤하여 한숨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짜뿌둥하여 좋지 않다고 하였다. 먼저 환자의 주

간 졸음지수를 측정해보았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여러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가장 흔한 형태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을 잘 때 정상적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즉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목젖, 편도, 혀 등이 뒤로 쳐지며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기도는 깨어 있을 때보다 수면 중에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의 경우 수면중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통과하며 코골이가 같은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현상이 발생하나, 기도가 심하게 좁아진 경우 호흡 중에 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막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된다. 기도가 심하게 좁아져서 완

전히 기도의 벽이 서로 붙어버리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이때 호흡이 자주 멈추는 가운데 코를 고는 중간에, 순간 잠자는 사람이 죽은 듯 조용해지게 된다.

의학적으로 수면 무호흡 장애는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원인으로는 정상보다 턱이 작은 경우, 혀나 편도선이 큰 경우, 목젖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처럼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는 경우와, 과체중으로 과도한 목의 지방조직이 기도를 압박하여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만, 나이가 많은 경우, 남성, 당뇨, 폐경 여성, 코 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쇄성 무호흡증이 매우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2-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본 환자의 경우 수면검사를 통하여 하룻밤에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30회 이상이 관찰되는 고도의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진단되었고, 이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상담 문의: 571-620-7159

흰다리 교정술·줄기세포 이식술로 관절염 치료 극대화

강남제이에스병원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는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할 질병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관절의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무릎이 붓기 시작하고 관절의 뻣뻣함, 관절 움직임 시 발생하는 염발음, 밤에 심해지는 야간통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다리가 'O자' 형태로 변형되기 시작한다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약물치료나 관절 내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해왔다. 하지만 O자 변형이 동반된 진행성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러한 보존적 치료법들이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 무릎 불균형이 관절염 가속

우리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는 안쪽(내측)과 바깥쪽(외측)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 연골 등이 노화되면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이를 유람선에 비유하면, 선체 한쪽에 구멍이 뚫리면 배가 그쪽으로 기울



지난 5월 2일 부에나파크 앨리스 커뮤니티센터에서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 대표원장이 줄기세포 연골재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

과거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치료법이었던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이 최장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0~60대에 수술을 받을 경우 재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대혈 줄기세포(카티스템) 이식술이 현대 의학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 재생을 위한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줄기세포 이식술만 단독으로 시행한 후 O자 변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복되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흰다리 교정술 중요

강남제이에스병원 김나민 병원장은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인 오다리나 엑스다리 등의 흰다리 변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흰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릎 관절의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켜주는 ‘O자 변형 교정술(근위경골절골술, HTO)’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첨단 수술기법 완치도 가능

O자 변형 교정술은 무릎 아래뼈인 경골을 절골하여 무릎의 체중 부하선을 정상 위치로 이동시키는 정밀한 수술 방법이다. 뼈의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무릎 안쪽보다 바깥쪽 연골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술로, 동시에 줄기세포 이식술로 인한 연골 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흰다리 교정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의 병합요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치료법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완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www.gnjshospital.com

일흔살 헌혈왕 “헌혈 정년 더 아쉬워”

(만 70세)

허명씨, 50년간 800번 넘게 피 나눠
“헌혈할 시기 되면 몸이 근질근질”

“매혈(賣血)하던 사람이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죠. 여건이 된다면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게 올바른 인생이다 싶었습니다.”

헌혈 개념이 흐릿하던 1976년, 그렇게 ‘내 피’를 처음 남에게 나눠줬다. 그에게 헌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일정이 됐다. 그 일상이 수십년간 쌓여 707회(12월 기준)가 됐다. “초반에 헌혈증 못 받은 것까지 따지면 실제 800번 훨씬 넘게 헌혈했죠.” ‘헌혈자의 날’(14일)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70세 허명씨 이야기다. 울산에 사는 허씨의 삶은 헌혈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몸에 해로운 술·담배는 아예 하지 않고, 육류나 커피·콜라도 멀리한다. 매일 2시간 산행을 하고, 아파트도 계단으로 오르내린다.

그렇게 50년 가까이 피를 나눠온 허씨는 영남 지역 최대 헌혈자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명예의 전당’ 명단엔 5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통사고 중증환자가 8시간 수술한다고 치면 수술량이 8000cc가량 된다고 하더라. 내 누적 헌혈량을 계산해보면 환자 35명은 구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헌혈할 시기가 되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무 아닌 의무 같은 생활을 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죽하면 표



‘헌혈왕’ 허명씨가 2003년 200번째 헌혈 중인 모습. 그해엔 헌혈이 일상이다. [사진 허명씨]

창을 받는 13일, 헌혈자의 날 기념식 참석 때문에 예정된 헌혈을 미루는 게 못내 아쉬울 정도다. 내 집처럼 드나든 울산 지역 헌혈의집 직원들과도 가족같이 친하다고 한다. 그는 “헌혈도 일종의 중독 같다”면서 “피 검사도 공짜로 해주니 얼마나 좋냐”고 했다.

은퇴 전까지 허씨는 32년여 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했다. 주·야간 교대 근무에 지친 몸이라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헌혈만큼은 빼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10년 전 직장 정년퇴직보다, 석 달 뒤 헌혈 정년이 더 안타깝다고 했다. 혈액관리법상 만 70세가 되기 전까지만 헌혈이 가능하다. 70번째 생일 전까지 6번은 더 피를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회사는 생계를 위해 다녔지만,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아쉽다”고 했다.

허씨는 “최첨단이라는 현대 의학도 인공혈액은 아직 못 만든다”며 “나 자신도 언제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는 만큼, 편견보다 의지를 갖고 헌혈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올해 65세 420만명, 구조적 변화 시작

‘은퇴자 파도’ 시대 본격 진입
부동산·노동시장·소비금융 등
경제·사회·정치 전방위 영향
단순 상속 아닌 재정 논의 필요



올해 65세가 되는 인구는 420만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사회가 구조적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본격적인 고령화를 상징하는 ‘피크 65(Peak 65)’를 맞는다. 올해에만 65세가 되는 인구는 약 420만 명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기록적인 해다. 사회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불리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소비 패턴, 정치 지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뱅크드 투자전략그룹의 피오나 그레이그 글로벌 리서치-정책 총괄은 “올해는 매우 중요한 인구학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65세가 되는 것은 2050년까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고령화 파도”라고 평가했다.

65세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이다. 본인이 원하면 소셜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피크 65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급 연령 상향과 급여 조정,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노동시장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수백만 명이 은퇴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교육과 보건,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생활비를 보전하거나 사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타임을 택하는 고령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 구조에도 영향

을 미친다. 고령 인구는 일반적으로 고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 대신 의료와 요양, 장기보험 등 건강 관련 소비 비중이 커진다.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는 둔화할 수 있지만, 헬스케어 산업과 시니어 서비스 시장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시니어 주택과 요양 시설, 원격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주거지 선택도 도시보다는 교외나 지방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과 안전, 복지 등 인프라 정책이 지역별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도 65세 이상 인구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들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세대로, 연금 보호와 건강보험 확대, 세금 혜택 등 고령층 친화적 정책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변화

연도	65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0	365만명	4030만명	-
2020	365만명	5580만명	16.8%
2021	370만명	5695만명	17.0%
2022	365만명	5780만명	17.3%
2023	365만명	5900만명	17.5%
2024	410만명	6010만명	17.6%
2025	420만명	6120만명*	17.8%
2026	410만명*	6250만명*	18.0%
2027	410만명*	6370만명*	18.2%
2028	365만명*	6510만명*	18.4%
2029	365만명*	6650만명*	18.6%
2030	365만명*	6790만명*	19.1%

* 추정치, 자료: 센서스국

의 강화가 예상된다. 반면 젊은 세대와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거나 세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격적인 고령화는 거대한 부의 이

전을 촉발하고 가족끼리 재정 논의가 활발한 독특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82조 달러에 이른다. 이중 상당 부분이

앞으로 10~20년 사이에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자산 관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82조 달러의 자산 중 일부는 여행과 의료비, 장기요양 등 은퇴 생활에 사용 되겠지만, 결국 상당 부분은 자녀 세대에 유산 형태로 이전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되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특히 부인에게 먼저 이전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그레이그 총괄은 “기혼 여성은 남편보다 오래 살 확률이 70%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족간, 특히 세대간 돈 얘기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산의 종류와 보관 위치, 재정 목표 등을 놓고 일찍부터 솔직하게 대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여기에는 학자금 대출과 자녀 대학 등록금 문제, 조기 은퇴 계좌 가입 등 여러 세대의 재정 문제가 모두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그 총괄은 “이제 상속은 단순한 유산 설계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자산과 기대를 조율하는 재정 조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주식거래 앱이나 투자 플랫폼이 일반화되면서 자산 이전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직전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갖고 가족끼리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산의 규모도 사상 최대이고 자산의 종류도 다양해져 좋은 의도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레이그 총괄은 “수명이 늘어났지만 70세 이상의 약 3분의 2는 어느 정도 인지 저하를 겪는다”고 지적한다. 자산 이전을 포함해 재정 문제를 앞당겨 잘 다루는 것이 실수나 혼란을 줄이고 노년을 잘 보내는 새로운 조건으로 떠올랐다.

인위희 객원기자

65세 이상 마리아나 사용 46% 증가

고학력·고소득·기혼자 더 많아
고령층 사이에서 마리아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 샌디에이고와 NYU 공동 연구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마리아나 사용률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46% 증가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자마 내과학 저널’에 실린 2023년

전국 약물 사용과 건강 조사를 따르면, 65세 이상의 약 7%가 최근 한 달 내 마리아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의 4.8%, 2022년의 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남녀 모두 마리아나 사용이 증가했지만 여성에게서 증가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이 마리아나 사용이 더 많았다.
특히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연소득 7만5000달러 이상, 기혼, 의료용 마

리아나가 합법화된 주 거주자일수록 마리아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소득층은 처음엔 사용률이 낮았지만, 2023년에는 오히려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며 “비용 부담이 있는 의료용 마리아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침을 부르는 소리~
중앙일보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보내세요~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 #310, Annandale, VA 22003

“이대로면 30대 영화감독 씨 마른다”



지난달 한예종에서 열린 한지원 감독의 '이 별에 필요한' 시사회. 넷플의 첫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다. 이날 시사회는 넷플과의 작업 과정을 묻는 재학생의 질문들로 채워졌다. [사진 넷플릭스]

영화계 불황 속 신인 감독 기근 영진위 제작지원 사업 선정결과 전체 9명 중 상업 데뷔는 2명뿐 홍행 보증된 감독만 기회 주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영화를 찍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2020년 독립영화로 데뷔를 한 30대 감독 A씨가 지난달 26일 발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한국 영화계 불황 속, 신인감독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중예산 규모의 작품 지원사업에 기성감독들이 대거 선정되며 신인감독들의 상업영화 데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지난해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 박영주 감독의 첫 상업데뷔작이다. 2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중예산영화 지원작으로 선정됐으나 자진 취하였다. [사진 쇼박스·전주국제영화제]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한 이 지원사업은 국내 처음 도입된 예산 규모 100억의 상업영화 지원책으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만들어졌다. 113개 작품을 검토했고, 이 중 순제작비 20억~80억원 규모의 실사극영화 9편이 선정됐다. A감독이 놀란 건 선정작 감독들의



2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중예산영화 지원작으로 선정됐으나 자진 취하였다. [사진 쇼박스·전주국제영화제]

이름이었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장훈 감독의 '몽유도원도'에 각각 15억 지원이 결정됐고, 예비 1번에 변영주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9편 중 상업 데뷔감독은 신인 김선경 감독과 단편을 만들어 온 김정구 감독뿐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투자 제

작 가능성’과 ‘영화제 수상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하사탕’(2000), ‘버닝’(2018) 등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2017)를 만든 장훈 감독이 지원 대상에 오른 사실만으로도 영화계는 떠들썩해졌다. 발표 후 이창동 감독은 자진 취하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넷플릭스 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교수는 “최근 영화 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이번 지원사업에 신인·기성 감독이 대거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인감독의 상업 데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영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개봉작(개봉 후 40

회 이상 상영한 작품) 225편 중 20편만이 신인감독의 상업 데뷔작이었다. 이 중 3편은 개봉이 늦어진 ‘창고영화’(시민덕희)이거나 무술감독·배우의 연출 데뷔작(범죄도시 4·본노의 강)이었다. 올해의 경우 4월까지 실질개봉된 작품 70편 중 6편이 신인감독의 상업 데뷔작이다.

데뷔 기회를 잡지 못한 신인감독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OTT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22~2025년까지 공개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20%는 신인 작가 또는 감독의 상업데뷔작이었고,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5편 중 3편, 올해 공개되는 영화 7편 중 3편은 신인감독의 상업데뷔작이다. 넷플릭스의 첫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이 별에 필요한’도 한지원 감독의 상업데뷔작이다. 한투자배급사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재정 불안을 겪는 투배사들의 경우, 도전적이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글로벌 OTT가 신인에게 투자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그간 투자를 통해서만 꾸려져 온 상업영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탄탄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상업영화 데뷔 20여년 차인 C(57) 감독은 “이대로면 30대 영화감독 씨가 마른다”며 “상업감독 육성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용배 교수는 “봉준호·박찬욱 감독이 대표작을 낸 시기는 영화 투자와 지원이 활발했던 1998~2006년 사이다. 그때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영화 환경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리 기자

『천 개의 파랑』 6억원대 판권 계약... 할리우드 홀리는 K문학



최근 한국 문학이 할리우드 영화의 원천 소스로 주목받고 있다. 소설의 영상화는 원작의 판매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출판계 호재다. 판권이 팔렸다는 소식 만으로도 출

1 천선란 『천 개의 파랑』, 2 편혜영 『홀』, 3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사진 허블·문화과 지성사·민음사·창비]

판사 자체 홍보와는 비교되지 않는 스케일의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고, 유명 감독이나 제작사가 합류할 때마다 뉴스가 쏟아진다.

지난달 천선란 작가의 SF소설 『천 개의 파랑』이 미국 워너브라더스와 6억 원대 영화화 판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단적인 예다.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 ‘뮌’ 등 유명 시리즈 영화를 제작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정유정 작가의 스릴러 『종의 기원』은 글로벌 영화 제작사 RT 피처스에 3년 전 영화화 판권이 팔렸고, 편혜영 작가의 스릴러 소설 『홀』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할리우드

제작진과 손잡고 영화로 만들어 이르면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장르 소설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순문학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전미 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은 김혜순, 지난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황석영 외에도, 정세랑·박상영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각국에서 번역·출판되며 해외 독자들을 만났다.

문학상이 작품성의 바로미터라면 대중성은 판매 부수로 나타난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10개 언어권에서 누적 판매량 30만 부를 넘겼고, 페미니즘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맞물

려 다양한 문화권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2020년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에서 수상한 손원평의 『아몬드』는 일본에서만 20만부 이상 판매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번역 시장의 성장과 K컬처 전반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드라마·영화·K팝이 선점한 한류의 물결 속에서 문학 역시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문화콘텐츠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같은 단체들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번역 지원 사업과 국제 출판 네트워크 구축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한국 문학을 ‘주류’로 보게엔 이

르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문학상이 주는 일시적인 조명이나 한두 권의 베스트셀러만으로는 위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신경숙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그 여파가 후속작이나 다른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 옮겨가진 못했다는 점이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문학이 ‘작품상 수상 → 시장 확대 → 비평 담론 형성’으로 이어지는 세계 문학 진출의 단계 중 ‘시장 확대’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분석한다.

홍지유 기자

호스프링 아동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3915 Bi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703-259-5617, 410-241-252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Vienna T: 703 853 1966 | White Oak T: 412 681 8505 | Shady side T: 412 681 8505 | South side T: 412 681 8505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 1985 Lincoln Way Suite # 15 | 5438 Centre Avenue | 2300 Jane St.
Vienna, VA 22182 | White Oak, PA 15131 | Pittsburgh, PA 15232 |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5만석이 비었다, 맥빠진 '월드컵 리허설'

내년 북중미월드컵 앞두고 비상 클럽월드컵 첼시·LAFC 조별리그 평일·무더위 고려해도 표 안 팔려 'FIFA 단독 운영, 마케팅 실패' 분석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D조 첼시(잉글랜드)와 LAFC(미국)가 맞붙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첼시가 2-0으로 이긴 이날 7만1000석의 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는 2만2137명에 불과했다. 세계적 명문 클럽(첼시)과 개최국 미국 클럽(LAFC)이 맞붙은 '관심' 경기인데도 5만석이 나뉜 경기장은 웅했다. 엔조마레스카 첼시 감독은 "관중석이 거의 비어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첼시가 2년 전 같은 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투어 경기를 치렀다. 당시 7만명이 몰렸다. 이 구장을 홈으로 쓰는 미국프로축구(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평균 관중도 4만2500여명이다. 관중석을 반도 못 채운 가장 큰 이유로 평일 낮(현지 월요일 오후 3시 Kick-off) 경기인 점이 꼽혔다. FIFA가 대서양 건너 영국의 TV 프라임타임에 맞춰 경기를 무리하게 배정했다는 후문이다. 입장권도 최고 30만원으로 비쌌다. 낮 경기이다 보니 섭씨 32도까지 치솟은 무더위로 경기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었다. "너무 더워서 발가락이 화끈거렸고 발톱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선수까지 나왔다.

무엇보다 로스앤젤레스 연고 클럽 경기를 3200km나 떨어진 애틀랜타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클럽 월드컵 첫 경기 페넬티키 찬스에서 왼발로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는 파리생제르맹 이강인. [로이터]

서 치른 게 문제다. 이날 LAFC 서포터스 약 500명 정도가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사연이 있다. 당초 출전 예정이던 클루브 레온(멕시코)이 출전권을 박탈당했고, 뒤늦게 LAFC의 출전이 결정됐다. 홈에서 경기하는 인터 마이애미, 시애틀 사운더스 등 나머지 미국 클럽과 달리 LAFC는 조별리그 2:3차전도 각각 테네시주 내슈빌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치른다.

클럽월드컵은 1년 뒤에 열린 북중미월드컵 리허설 격이다. 요컨대 클럽월드컵의 흥행이 북중미월드컵 성공

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번 대회는 미국 내 대회조직위원회 없이 FIFA가 직접 조직했다. 이런 독단적 운영이 마케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유럽축구 비시즌에 '끼워 넣은' 대회라는 점에서 흥행 부진이 예견됐다. BBC는 "대회 초반 5만석에 달하는 빈 좌석으로 FIFA가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며 "내년 북중미월드컵 입장권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기 경고"라고 지적했다.

스티브 체룬들로 LAFC 감독은 "(16일) LA 로즈볼에서 열린 파리생

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는 엄청난 관중(8만619명)이 몰렸다"며 "관중 문제는 대회가 끝난 뒤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애틀랜타 지역지는 "내년 월드컵을 위해 돈을 아끼려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대회(클럽월드컵)에 돈을 쓰는 건 매력적이지 않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조별리그 C조에서는 보카 주니어스(아르헨티나)와 벤피카(포르투갈)가 2-2로 비겼고, D조에서는 플라멩구(브라질)가 ES튀니스(튀니지)를 2-0으로 이겼다.

박란·피주영 기자

자이언츠 데버스 영입 레드삭스와 트레이드

메이저 리그(MLB)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에서 1위 경쟁에 한창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트레이드로 강타자 라파엘 데버스(28-사진)를 영입했다.



MLB 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보스턴 레드삭스에 선발 투수 조던 히스와 투수 유망주 카일 해리스, 여기에 추가로 선수를 보내고 데버스를 데려왔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MLB 인사이드의 로버트 머리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가 선수'가 유망주 외야수 제임스 팀스와 투수 호세 벨로라고 덧붙였다.

이동한 선수 숫자만 보면 1대 4 트레이드지만, 현지에서는 보스턴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트레이드를 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7년 20살의 나이로 빅리그에 데뷔한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 데버스는 9시즌 통산 타율 0.279, 214 홈런, 69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58을 찍은 선수다.

올스타에도 세 차례 선정되고 두 번의 실버 슬러거를 차지할 만큼 공격력이 돋보인다.

이처럼 MLB 최정상급 내야수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를 트레이드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보스턴은 지난 2023년 1월 데버스와 11년 총액 3억3100만달러짜리 초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스턴의 데버스 트레이드는 지난 오프시즌 포지션을 놓고 구단과 선수가 빚은 갈등의 여파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스턴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알렉스 브레그먼을 영입하며 3루 터줏대감 데버스에게 지명타자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 거부하던 데버스는 결국 구단 요구에 따라 지명타자로 이동했다. 그러나 지난달 팀 1루수 트리스턴 카사스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뒤 구단이 1루 수비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는 좌타 거포 데버스 영입으로 단숨에 강타선을 구축하게 됐다.

'나홀로 언더파' 스폰, US오픈 역전 우승

매킨타이어 2타차 제쳐

J.J. 스폰(35)이 1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오크mont 골프장에서 벌어진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우승했다. 마지막 날 2오버파를 쳐 최종합계 1언더파로, 로버트 매킨타이어를 2타차로 제쳤다.

대회는 가장 어렵다는 오크mont에서 뇌우 속에 어수선하게 진행됐다. 선

두권 선수들이 일제히 점수를 잃었다. 4언더파 선두로 출발한 샘 번스(미국)가 11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면서 언더파가 모두 사라졌다.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점수를 잃어 3시간 전에 4오버파로 경기를 마친 존 램(스페인)이 우승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날 하루 번스는 8타를, 아담 스콧(호주)은 9타를 잃었다. 2번 홀에서 볼이 깃대에 맞고 굴러 나가는 불운 등으



로 6번 홀까지 5타를 잃은 스폰은 버렸다. 선두에 4타 차 뒤졌던 그는 후반 들어 12번 홀(파5)에서 13m 버디를 잡아 선두권으로 재진입했다. 짧은 파4(314야드)인 17번 홀에서 1온에 성공해 버

디를 잡으며 선두로 올라섰다.

스폰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파를 해야 우승이었다. 2번 만에 그린에 올렸지만, 거리가 22m나 돼 2퍼트를 장담할 수 없었다. 빗속에서 스폰은 먼거리 퍼트를 욱여넣어 버디를 잡았다.

언더파 우승. 그는 "3퍼트를 피하는 경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경사는 알았지만, 비 때문에 스피드가 어떤지 몰랐다. 비슷한 장소에서 한 빅토르 호블란의 퍼트를 참고해 넣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크mont=성호준 골프전문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척추사랑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힐버스트링 롯데 위트니스(Star)에서 10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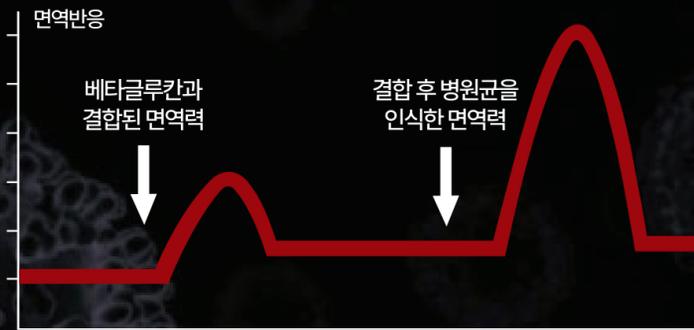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과 챔플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강력한 면역 활성화 물질-

베타글루칸

단기간에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분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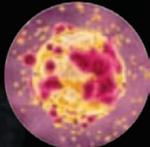
(출처: Journal of Food Additives Vol 16, 12/2021 pg 8-18)



암투병



항암 치료 후 재발 관리



만성염증



조강일
내과전문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우메켄 **NEW** 베타글루칸

- 영지버섯 • 상항버섯 • 차가버섯 • 꽃송이버섯 • 녹각영지버섯 • 동충하초 • 송이버섯 • 마이다케(잎새)버섯 • 아가리쿠스버섯

9가지 항암버섯에서 추출한 우메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함량을 **280mg**으로 올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면역력을 위해! 우메켄 베타글루칸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암 치료 중인 분 •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
- 고열이 자주 발생하여 몸이 떨리고 질병 회복 기간이 긴 분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 백혈구 수치가 낮아 구내염, 설사, 감기, 독감에 자주 걸리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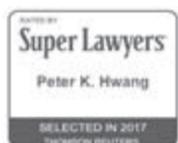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6월 구인광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무경력자
-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 분 0명
- 금요일 주방에서 보조 할 분 0명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 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트타임, 베킹만 할 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골든 듀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게이터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홀 이중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월부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홀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 렌트, 넓은 이중방,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홀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 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홀 이중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할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사이안트요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 분 구함. 유경력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 (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 시간 8시-5시 (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 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찰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찰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 443-420-3096

애난데일 신촌 셀링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풀&파트타임)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야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력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플라자 스타라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 세팅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아발소에서금,토요일일하실분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부스렌트, 스킨케어를원하시는분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가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하실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일할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타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함 571-332-6110

첸틀리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센터빌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9시반까지 8세, 9세 아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테런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473-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타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VAC, Fenced back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웰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 있는 뒷마당, 남향, 밝은집,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운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첸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가스값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벨링 화장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튼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센터빌 극장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료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 터 입주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취사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료 \$1,100 ▶301-928-4125

애난데일 중심가 싱글홈 방 2 렌트, 부엌/화장실/입구 별도/주차편리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터넷 유료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리스 합니다. 방 1, 풀베스 1, 웨어 키친, 파킹티켓 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비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완비, 즉시 입주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타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인터넷 유료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474-9713

첸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료,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유도,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오피스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원
▶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 571-239-6054

Stafford 싱글하우스 \$71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데크, Stone Patio, 새 단지
▶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국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랜트수익 \$3,000
3. 스탠포드 타운하우스 \$420,000 방3, 화장실 3.5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 2, 랜트\$3,600
▶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없음.

2. 매나사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 등 좋은 생활여건
▶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치킨 가게 양도 (한국 귀국) 1920 sf 현재 영업중 (알렌사드리아 물) 주방 일체, 치킨 가게와 다른 업종도 가능 재정상태 양호 하신분
703-338-1636 / 646-415-2347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저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심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원
▶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심 미장원 은퇴, NEW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 571-239-6054

▶ ▶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 상업중심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비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TOYOTA RAV-4 XLE 2013 Years 환색 115K, Haul Master Transmission Oil 교환 New Tires 상태 양호 One Owner \$14,750
▶ 703-525-2929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 문의 : 703-678-6639

▶ ▶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 ▶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울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건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딩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물세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VA)/443-980-5858(MD)

▶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웜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급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시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미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 &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im: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짐: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Roger: Not much, I'm going to wash my car. It's long overdue.
 라저: 특별한 거 없어. 세차 좀 할 거야. 오랫동안 미뤄놓은 거라서.
 Jim: Well I'm going to go shopping for a new car.
 짐: 있잖아 난 새 차 보러 갈 건데.
 Roger: Really? That's fun.

라저: 정말? 그거 재미있겠다.
 Jim: Except the new cars today all look alike.
 짐: 요즘 새 차는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빼면 재미있지.
 Roger: I know, I can't tell them apart.
 라저: 맞아. 나도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Jim: And I think I'm going to get a four-door. I've always had two-doors.
 짐: 그리고 4도어 차를 살까 생각 중이야. 지금까지

지 2도어 차만 샀거든.
 Roger: I like four-doors.
 라저: 나도 4도어 차 좋아하잖아.
 Jim: Do you want to tag along with me tomorrow?
 짐: 내일 나랑 같이 갈래?
 Roger: Sure, I'll wash my car on Sunday.
 라저: 물론이지. 차는 일요일에 닦지 뭐.

기억할만한 표현

tell (people or things) apart: 구별하다

(It's Friday and Jim is talking to Roger at work...)

(금요일 짐과 라저가 직장에서 대화를 나눈다...)

- ▶ It's long overdue: 오랫동안 밀린 일.
 "I've got to get a haircut. It's long overdue."
 (머리를 잘라야겠어. 너무 오래 미뤘어.)
- ▶ look alike: 비슷하게 생겼다.
 "Those two girls look alike don't they?"
 (저기 여자에 둘은 닮았어 그지?)
- ▶ tag along (with someone): (누구에게) 붙어가다.
 함께 가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가로열쇠

(1)상반신은 인간이며 하반신은 물고기. 듀공이 새끼를 안고 젓을 먹는 모습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죠 (3)해마다 한 살씩 먹지요 (5)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명명개야 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7)죄인의 두 다리를 한테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 (8)말을 먹여 기르는 곳 (10)넓은 빈터. 광화문 ~ (12)공중에 떠 있어 바람이 불면 흘러가지요.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젓빛 ~, 보오양 ~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땀이 꽃 향기로운 언덕(박두진) (13)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춤 (14)굽고 거세게 찌작 내리는 비 (16)있을 건드리면 이내 닫히지며 아래로 늘어지지요 (18)시골로 내려감.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 (19)남의 말을 받아 자기 의사를 밝힘 (20)전자우편 (22)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 (23)말이나 사자의 목덜미에 난 긴 털 (24)말 (25)큰 죄를 짓고 죽으면 이곳으로 갑니다 (27)먹으면 늙지 않아요 (28)낮 12시 (30)말을 타고 하는 싸움 (31)가짜 머리 (32)임금에게 올리는 밥.

세로열쇠

(1)도장밥 (2)귀여움을 받으려고 예쁜 태도를 보이며 버릇없이 구는 일 (4)귀·눈·입·코 (5)간장에다 쇠고기를 넣고 조린 반찬 (6)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됨 (9)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1)기나긴 여름날 (13)아내의 어머니 (15)세수를 하거나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 (16)자기 자신에게 이롭지 않으면 요리조리 살살 피하거나 잘 빠져나가는 사람 (17)울릉도 독도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반기는 바닷새. 우는 소리가 고양이 같다고 불은 이름이죠 (19)왕새우 (21)몸의 길이는 25~30cm가 보통이나 간혹 1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 비늘이 없고 미끈거리며 머리는 넓적하다 (22)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향우가 사면이 포위되었을 때,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의 노래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라서 애첩 우미인과 함께 자결했다고 하죠 (24)좌우로 된 방향. ↔세로 (26)옥이 나는 곳에서 나오는 샘물 (27)부처 앞에 바치는 돈 (29)죄인을 묶을 때에 쓰던 줄.

스도쿠

		3	4					9
	4	8					5	
			5	3	1	8	4	6
				8	9			5
				6		9	3	8
		9	3	1				2
5				9		2	8	4
7		2		4		1		
			8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9	6	3	2	5	8	1	4	9	1	8
9	5	1	3	4	6	2	7	8	2	7	8
4	8	2	7	6	1	9	6	3	6	5	5
2	8	4	7	2	5	4	7	2	8	6	9
8	6	9	3	1	5	3	6	9	8	2	1
3	8	6	4	6	7	6	5	7	5	7	2
5	1	9	6	8	2	4	7	4	7	3	4
6	9	4	8	1	3	5	7	2	2	6	9
3	2	5	6	7	6	9	8	4	8	1	4
1	6	9	7	8	2	4	3	5	5	6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자격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간증문,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교회사역 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제출처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접수마감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문의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HOPE CHURCH 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미국 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속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가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폴렌)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대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